

전략연구

실천농장 운영을 통한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전략

농촌농업연구부

김기홍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농가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고, 기존 농가들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농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농촌의 지역 공동체 유지 기반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는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실제 농업을 경험하고 실습하면서 농업적 소양을 기르고, 농촌 지역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농촌적 소양도 배워나갈 수 있는 형태의 지역 차원의 실천적인 농장(이하, 실천농장)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천농장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충남에서 이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확대해 갈 것인가를 밝히는 것에 있다. 전국 단위의 실천농장 및 현재 충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천농장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실천농장의 특성을 정리하여 실천농장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실천농장을 비교 정리함으로써 충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실천농장의 역할 및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정책제언으로는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천농장을 확대 방안과 실천농장 로드맵을 제시하여 충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 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청년 농업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후계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귀농귀촌의 측면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연구가 늘어나고 추세이다. 해외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교토부에서는 체계적인 청년층 육성 단계를 통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천농장 자체가 많지 않으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선진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 현장의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응답하는 형태의 현장 조사 기반의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 하고자 한다.

제3장 충남 청년 농업인의 현황 및 정책

2017년 현재 충남의 농가는 125,886호로 전국 농가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288,800명으로 전국 농가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과 2017년 사이 전국적으로 농가 호수가 연평균 1.7%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충남은 2.6%로 감소하고 있고, 농가인구는 전국 연평균 3.3%의 감소에 비해 충남은 4.4%로 높은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충남 농업인의 고령 비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높아지는 반면, 젊은 층의 비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60세 이상의 농업종사자는 전국 69.1%인데 비해 충남은 71.2%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40세 미만 농업종사자는 전국 약 2.5%에 비해 충남은 약 2.4%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경우에는 전국 68.3%인데 반해 충남은 70.6%로 높았으며, 40세 미만 농업경영주는 전국 1.3%인데 반해 충남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2000년에는 39세 미만의 청년층 비율(전국 8.6%)이 전체 농가(전국 6.6%)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60세 이상 고령 농가의 비율은 각각 41%, 51%로 10% 가량 차이가 나는 수준에서 비교적 젊은 농가들이 많았으나, 2015년에는 30대 이하 젊은 층은 2% 수준으로 떨어졌고 60세 이상 고령 농가의 비율은 64% 수준에 이르고 있어 친환경농가의 고령화 문제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 농업인 육성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2017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창업농 육성 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청년 농업인 1만 명 육성 계획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2월에는 귀농귀촌지원종합계획(2017~2021)을 발표하고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이라는 비전 아래 5년간 청년(2030세대)층 귀농 창업을 1만 가구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큰 화두인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귀농 정책 부분에서도 청년층 농업창업

에 힘을 실기 시작했고 교육 체계 개편과 일자리 연계 등을 강화한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농촌 활력 증대를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태이다.

충남에서는 청년 농업인과 관련하여 주로 농업 창업 및 농업 교육에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후계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창업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착 청년 귀농인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일반 귀농귀촌 교육과 멘토링 지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청년 농업 으로서 잠재력이 큰 귀농인의 경우 후계농업인은 물론 귀농인이 아닌 자(도시민 포함)에 비해 서도 훨씬 적은 상태이다. 최근 들어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편 이지만 운영 규모 측면이나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내실 이 미약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장 청년 농업인 육성 실천농장 실태 조사

본 연구에는 실천농장이 현재 과연 얼마나 존재하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에서 청년층을 육성하고 실 제 농사를 지어보는 장기 과정의 농장을 실천농장으로 보고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단 위에서 4개소와 충남 지역 4개소를 더하여 총 8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크게 현황 조사와 운영 분석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실천농장의 특 성을 도출하고,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실천농장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천농장의 특성으로는 유기농업이 기반이다, 지역 정착을 위한 전 단계로서 기능해야 한다, 교육적 기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1년 정도의 장기 교육 과정이어야 한다, 작은 별이라도 소득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해야 한다는 6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분모를 가진 곳을 실천농장으로 하고, 지역 단위에서 실천농장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천농장의 역할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들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 농업의 전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꼽을 수 있다. 2차적 역할로는 농촌 청년 육성을 들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농촌 사회의 이해와 지역 문화의 계승으로 정리된다. 마지막으로 실천농장의 과 제로는 그 전제로서의 당위성을 위해 지역 단위 논의가 필요하며, 지속성을 위해 체계화된 실 천농장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마지막으로 실천농장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을 통해 확장되어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이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이미 현장에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이유로 농촌을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 농업을 실제로 배워보겠다는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천농장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현장이 필요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수요들을 정책적으로 발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천농장을 확대해 가기 위한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천농장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실천농장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과 정책적인 지원으로 가능한 영역 모두를 포함하였다.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실천농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확대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내의 역할과 도, 시군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내부적으로는 기본 인식과 관련해서 농촌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층 육성을 목표로, 기반 없는 청년층 지원한다는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한다.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농사가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과정으로 꾸려져야 한다.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사를 지어보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농장은 다수 존재할 수 있지만, 교육생을 체계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실천농장의 책임자의 부담을 덜게 해줄 지역 차원의 선도 농가를 지역 멘토로 두고 적절히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실천농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연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는 현재 청년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의 성격으로 진행 중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농업환경프로그램이나 사회적 농업,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농장(온실) 조성 임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현장 기반 지원 체계, 현장 시설 활용 지원, 지원 형태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모 형식의 지원 방식이 아니라 실천농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천농장의 책임자(멘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천농장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의 이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천농장의 설치와 유지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농업인 혹은 농촌 청년이 지역에서 가지는 역할에 주목하여 지역 단위의 계획 구상 속에서 실천농장의 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역 단위 계획이 마련되어 청년을 맞을 준비에서부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한 이후의 지역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 전략은 우선 지역에 필요한 청년 농업인은 그 역할이 다양하다는 인식 가운데 개별 사업이 아니라 청년 농업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또 지역 단위의 논의를 통해 지역에 마련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융복합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충남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 로드맵(안)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2
2. 연구 목적	3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4
1. 청년 농업인 관련 선행 연구	4
1) 국내 문헌 연구	4
2) 해외 문헌 연구	6
3) 해외 사례 연구	7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1
제3장 충남 청년 농업인의 현황 및 정책	13
1. 청년 농업인 현황	13
1) 충남 농가 및 청년층 인구 추이	13
2) 충남 귀농귀촌 인구 추이	18
3) 충남 친환경농업 관련 현황	22
2. 청년 농업인 정책	29
1) 정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29
2) 충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31
3) 실천농장 관련 사업	37

제4장 청년 농업인 육성 실천농장 실태 조사	44
1.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 현황	44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44
2) 조사 결과	45
2.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의 특성	86
1) 실천농장 운영 분석	86
2) 실천농장 특성	99
3) 실천농장 모델	101
3.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의 역할 및 과제	104
1) 실천농장의 역할	104
2) 실천농장의 과제	105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8
1. 결론	108
2. 정책제언	110
1)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 확대 방안	110
2) 청년 농업인 육성 전략	114
 참고문헌	115

표 목 차

<표 1> 충남의 농가 인구 추이	13
<표 2> 60세 이상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60세 이상 종사자)	14
<표 3> 40세 미만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40세 미만 종사자)	15
<표 4>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추이	16
<표 5>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추이	17
<표 6> 영농경력 5년 미만 농가 경영주 변화	18
<표 7> 귀농·귀촌 인구 추이	19
<표 8> 충남 귀농가구원 40대 미만 현황	21
<표 9> 충남 인증별 생산현황(2017)	22
<표 10> 충남 연도별 친환경농업(저농약 포함)	23
<표 11>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생산(2017)	23
<표 12>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2017)	24
<표 13> 충남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2017)	25
<표 14> 충남 시군별 친환경 인증농가(2017)	26
<표 15>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연령대별 분포	27
<표 16>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연령 분포(2015)	28
<표 17> 충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사업	34
<표 18>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내용	35
<표 19> 2018년 현재 현장실습교육장(WPL) 지정 현황	39
<표 20> 현장실습교육 사업 중 전국대표실습장 현황(2018년 현재)	41
<표 21> 현장실습교육 사업 중 지역품목실습장 현황(2018년 현재)	42
<표 22> 일본 교토부 사례와 비교를 통한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의 위계	43
<표 23>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 조사 대상지 개요	45
<표 24> 8개소 실천농장 현황 대조표	46
<표 25> 운영 분석 관련 실천농장 조사 주요 고려 항목	86
<표 26> 8개소 실천농장 운영 대조표	87
<표 27> 8개소 실천농장에 적용된 실천농장 특성 결과	101

그림 목 차

<그림 1> 일본 교토부의 취농 관련 지원 체계	11
<그림 2> 60세 이상 농업종사자 비율(3개월 이상)	15
<그림 3> 40세 미만 농업종사자 비율(3개월 이상)	16
<그림 4> 2014년, 2017년 충남의 귀농 가구 추이	19
<그림 5> 2014년, 2017년 충남의 귀촌 가구 추이	20
<그림 6> 2013년~2017년 귀농 가구 추이	22
<그림 7> 충남의 친환경청년농부 사업 추진체계	37
<그림 8> 금산군 체류형 농업창업교육센터 전경	48
<그림 9> 전국귀농운동본부 내 순창군 귀농지원지원센터 위계	51
<그림 10> 화천현장귀농학교 전경	58
<그림 11> 화천현장귀농학교 규칙 및 기숙사 생활수칙	61
<그림 12> 밀양 감물생태학습관 전경	64
<그림 13> 홍성군 젊은협업농장 전경	61
<그림 14> 향꾸네협동조합(좌)과 청년쉐어하우스 꿈엔들(우) 전경	68
<그림 15> 논산시 들녘영농조합법인 전경	81
<그림 16> 충남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 로드맵(안)	113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청년 농업인 육성은 필요한가?

농가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고, 기존 농가들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농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농촌의 지역 공동체 유지 기반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현재 충남의 농가는 125,886호로 전국 농가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288,800명으로 전국 농가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과 2017년 사이 전국적으로 농가 호수가 연평균 1.7%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충남은 2.6%로 감소하고 있고, 농가인구는 전국 연평균 3.3%의 감소에 비해 충남은 4.4%로 높은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충남 농업인의 고령 비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높아지는 반면, 젊은 층의 비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60세 이상의 농업종사자는 전국 69.1%인데 비해 충남은 71.2%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40세 미만 농업종사자는 전국 약 2.5%에 비해 충남은 약 2.4%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경우에는 전국 68.3%인데 반해 충남은 70.6%로 높았으며, 40세 미만 농업경영주는 전국 1.3%인데 반해 충남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2000년에는 39세 미만의 청년층 비율(전국 8.6%)이 전체 농가(전국 6.6%)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60세 이상 고령 농가의 비율은 각각 41%, 51%로 10% 가량 차이가 나는 수준에서 비교적 젊은 농가들이 많았으나, 2015년에는 30대 이하 젊은 층은 2% 수준으로 떨어

졌고 60세 이상 고령 농가의 비율은 64% 수준에 이르고 있어 친환경농가의 고령화 문제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업인력을 이어갈 후계농업인력으로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은 문제인 정부에 들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후계 농업인력 육성 문제가 주로 ‘농업인 후계자’ 육성 정책의 개념에서 다루어져 왔고, ‘농업인’ 육성을 통한 ‘창업농’에 초점이 맞추어져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청년층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 정부를 비롯하여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김기홍 2016, 마상진 외 2017).

2) 연구 필요성 :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 왜 필요한가?

이제 이러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큰 틀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방향은 농업을 하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창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창농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4-H와 관련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며, 귀농귀촌으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층에 대해서는 귀농 정책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수준이거나 도시민 유치 차원에서 예비 청년층을 겨냥한 시범적인 사업 혹은 단편적인 사업 형태에 그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실제 농업을 경험하고 실습하면서 농업적 소양을 기르고, 농촌 지역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농촌적 소양도 배워나갈 수 있는 형태의 지역 차원의 실천적인 농장(이하, 실천농장)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김기홍 2016, 김정섭 외 2017).

현재 충남에는 새롭게 농업을 접하고 농촌 지역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농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하게 하며 지역 사회의 구성 요소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협업 형태의 실천농장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진 농장은 물론 자생적으로 새로

게 생겨나고 있는 이들 실천농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천농장의 현황과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실천농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과제를 찾아내어 실천농장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의 전략적 근거가 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천농장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충남에서 이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확대해 갈 것인가를 밝히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천농장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 지로는 전국 단위의 실천농장 및 현재 충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천농장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실천농장에 대한 현황 및 운영 분석을 통해 실천농장의 특성을 정리하고 해당 실천농장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농장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실천농장을 비교 정리함으로써 충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실천농장의 역할 및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제언으로서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천농장을 확대 방안과 실천농장 로드맵을 제시하여 충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 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실천농장의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실천농장 확대를 위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광역 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지원 정책과 지역 사회 내부에서의 역할을 구분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충남의 농촌지역에서 고령화 되어가는 후계인력을 확충하고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다양한 형태의 인재를 지역 내에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 공동체 유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1. 청년 농업인 관련 선행 연구

1) 국내 문헌 연구

지금까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농업인력’이라는 개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인력개발을 통한 육성책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해섭, 김정주(2002)는 미래세대 육성 차원에서 농업 및 농촌의 인력개발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80년대 이후 인력정책의 흐름을 정리하고 집단 간 상이한 요구와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도 체계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임형백(2008)은 농업인력육성이 현직교육훈련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식기반 농업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업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은영(2014)은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2004~2013) 예산의 많은 부분(65%)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잠재적 농업인력에 대한 투자 부족을 지적함. 한편, 청소년들이 체험교육을 통해 농업을 접할수록 농업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김강호, 마상진(2009)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 가지는 농업생산성 기여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6년 후부터 농업생산성에 일정부분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익수, 김병률(2011)은 농업인력 고용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영농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농업분야 노동경험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농업인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진종순(2010)은 품목별 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인대학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의 경우 사회, 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삶의 변화에서도 농업경영에 대한 자신감 증대와 협력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제시하였다.

황인옥, 이소영, 주진수, 양주환, 김종숙(2017)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 특성을 밝히고 있다.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에게서는 영농의 규모화, 기술혁신, 노력에 대한 인증 및 수상이라는 결과의 창출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청년 농업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영창, 박은식, 고정숙, 조영숙(2007)은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필요성 및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역의 역할 가운데서는 청년 농업인의 조직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김기홍(2016, 2017, 2018a)은 충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현황 및 실태 조사, 사례 조사 연구를 통해 청년 농업인이 갖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 청년 농업인 유형별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하여 귀농귀촌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종인, 김정섭(2016)은 일본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 실태 연구를 통해 귀농 정책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농업인력의 재생산 및 농촌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섭(2014)은 귀농 가구들의 성공적인 정착이 지역경제의 다각화에 기여하게 되며 이것이 농촌 지역 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섭, 김종인(2017)은 귀농귀촌 인구를 전망하면서 귀농귀촌 정책이 지역 공동체 활력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인구 증대 자체가 아니라 농촌에 활력을 일으킬 인적 자원, 특히 젊은 인재를 육성” 하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정착 지원이 아닌 일자리 창출에 주력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상진, 정은미, 김경인(2018)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 실태와 요구에 대한 진입유형별,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창업농 육성 체계에 관한 분석과 사례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형태의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교육농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농장의 형태이거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 농장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가운데서도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농장의 운영 실태를 연구한 박규근, 이도진, 이선하(2002)는 학교농장을 수익을 위한 경영농장과 실습을 위한 실습농장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하며, 교사의 역할 역시 농장운영과 교육활동을 분리하여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 실천농장 역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의 장(場)인 농촌교육농장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연구한 박덕병, 이민수(2015)는 교육농장 사업이 2006~2014년 현재까지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총 476개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농장 119개를 포함하면 전국에 600여개가 있다고 하며, 학습태도 효과와 생활습관 효과, 식습관 효과, 환경인식 효과로 4개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어 실천농장의 교육적 효과 측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2) 해외 문헌 연구

Zagata, & Sutherland(2015)은 유럽의 청년 농업인 연령이 유럽연합통계청은 35세, 농촌개발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 1698/2005)은 40세 미만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새롭게 진입한 귀농인과 영농 후계자가 청년 농업인 개념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활력까지 고려하면 청년층 농업경영체 숫자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계약 재배나 임대, 협업 등 다양한 농지 소유 형태에 관여하고 있는 그들의 역할을 인식한 가운데 청년 농업인 정의가 일관성 있게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Leonard, Kinsella, O’ Donoghue, Farrell, & Mahon(2017)은 아일랜드의 영농 후계자 문제를 경제적, 재정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정부는 농업인의 조기은퇴를 유도하여 영농 후계자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영농 승계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과감하고도 면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에서도 청년 농업인의 연령 불일치 때문에 정부의 세금 감면 및 직불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년 농업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wood, & Sharp(2012)는 미국 중서부 대도시 접경 2개 지역의 가족농 33가구를 대상으로 영농 후계자의 유무가 농업의 유지 및 농업 규모 확대와 증산, 상품화 등 농식품산업적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대규모 유통 기반인지 소비자 직거래 기반의 경영체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다르며, 영농 후계자의 역할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Koutsou, Partalidou, & Ragkos(2014)는 그리스의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11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자본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trust) 수준 측정을 통해 밝혔다. 가족과 친구, 지역의 자발적인 조직 등 개인적 차원의 신뢰는 높은 편이었으나 공공서비스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부는 청년 농업인의 사회적자본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전략적이고도 통합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해외 사례 연구1)

○ 일본의 청년 신규취농자 육성 정책

일본에서는 취농(就農)이라는 이름 하에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창농은 물론 ‘농업’에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고용 형태도 역시 신규취농자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의 만 39세 이하 신규취농자는 1만 3천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로 추이되며, 30%가 생계가 안정되지 않은 이유로 5년 이내에 이농하고 있어 정착은 1만 명 정도이다(농림수산성, 2012). 신규취농자²⁾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신규자영농업취농자는 농가세대원으로서 자가

1) 이 부분은 ‘청년 농업인 육성 사례: 일본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3농혁신대학 청년농업육성 과정(2017년 3월 16일), ‘실질적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 방안, 강원농산어촌미래포럼 제161차 정기세미나(2017년 6월 13일), ‘귀농귀촌 첫걸음을 위한 교육의 역할, 2017년도 농어촌복지포럼 하계 학술세미나: 귀농귀촌과 농촌복지(2017년 7월 11일) 발표 자료 참조.

2) 신규자영농업취농자는 농가세대원으로서 조사기일 전 1년 간 생활의 주요 상태가 ‘학생’에서 ‘자영농업 종사가 주’가 된 사람 혹은 ‘다른 곳에 근무가 주’에서 ‘자영농업의 종사가 주’가 된 사람. 신규참입자는 조사기일 전 1년 간 토지나 자금을 독자적으로 조달(상속, 증여 등을 제외)하고 새롭게 농업경영을 개시한 경영의 책임자. 고용취농자는 조사기일

농업에 취농한 자로 경영승계형 농가를 말하고, 신규고용취농자는 고용형태의 취농자를 말하며, 신규참입자가 우리의 귀농인에 해당된다.

일본의 지원 정책은 청년취농자를 대상으로 1994년 취농지원자금 청년취농자 무이자자금을 신설하고 대부사업 형태를 띠었다. 2008년에는 ‘농 고용사업’을 마련하여 고용취농자를 육성하기 위해 농업법인 등이 실시하는 연수에 대한 비용 조성을 지원해왔다. 조성금액은 연간 최대 1,200만 원으로 조성기간은 최장 24개월이다.

2012년에는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청년취농급부금’을 마련하였다. 취농을 위해 농업기술 및 경영노하우 습득을 위한 연수에 전념하는 만 45세 미만 귀농희망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기간 2년간과 경영개시 후 5년으로 총 7년까지 가능하며 연간 150만 엔을 지원한다. 2018월 10월 9일 농업인재력강화종합지원사업 실시 요강이 최종 수정되면서 청년취농급부금 제도는 ‘농업차세대인재투자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되었다.

준비형의 경우 대상에는 도도부현 지자체가 인정하는 도부현 농업대학 및 선진농가, 선진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취농자도 포함된다³⁾. 경영개시형의 경우, 복수의 신규취농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공동경영을 할 경우에는 신규취농자 각각 최대 150만 엔을 지급하며 부부가 같이 취농할 경우(가족경영협정, 경영자원의 공유에 의해 공동경영자인 것이 명확할 경우) 합쳐서 1.5인을 지급한다. 경영국 취농 및 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교부 주체는 도도부현 지자체 및 청년 농업인육성센터,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교부 후 1.5배 기간 동안 영농하지 않으면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는 취농과 관련해서 농지중간관리기구⁴⁾를 활용하여 농지문제와의 연계 속에서 사람·농지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영국 경영정책과, 농지정책과, 취농·여성과, 금융조정과 등 관련 부서들이 함께 연계하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다

전 1년 간 새롭게 법인 등에 상근으로 고용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게 된 자(외국인 제외)

3) 영농승계의 경우에도 취농 후 5년 이내에 경영을 승계하거나 농업법인의 공동경영자가 되어야 할 것

4) 향후 10년간에 영농주체의 농지 이용이 전 농지의 80%를 차지하는 농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지의 집적과 집약화로 비용 삭감을 실현하고자 함. 다른 말로 농지집적뱅크라고도 함. 도도부현 각 1개소가 마련되어 있음. 역할로는 농지에서 분산된 토지이용을 정리하고 영농주체별로 집약화 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경지방기지 등을 농지중간관리기구가 빌려서 농지가 필요한 법인경영이나 대규모가족경영, 집락영농, 기업에 빌려주고 있음. 업무 일부를 시정촌에 위탁하여 농지집적과 경작포기지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경영국 농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2016년 3월말 현재 전국의 농지 집적을 평균은 52.3%로 홋가이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시 말해 농지중간관리기구(농지집적뱅크)와, 사람·농지 플랜(지역마스터플랜), 신규취농, 농지집적을 하나의 연결선상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

○ 일본의 교토부의 청년 신규취농자 지원 정책⁵⁾

일본 교토부에서는 공익사단법인 교토부 농업종합지원센터(통칭: 교토 어그리 21, 교토 시내 위치)가 중심이 되어 취농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농업종합지원센터는 1970년, 사단법인 교토부 농업개발공사로 설립되어 2012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2015년 교토부 농업종합지원센터와 교토부 농업회의, 교토부 농림수산부의 연대 강화를 위해 ‘교토부 농업농촌창업센터’를 설치했고, 2016년 7월에 센터 내 ‘교토 농업인재육성센터’ 설치로 ‘인재 양성’에 주력하게 됨. 교토부 농림수산부 경영지원 및 인력양성과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실질적인 신규취농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우선 농지중간관리기구 업무로 농지집적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규취농지원사업으로서 농림수산업 잡카페 운영과 인력양성 실천농장 정비사업 및 청년 농업인 경영력 향상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 비즈니스 센터 관련 사업으로 6차산업화 및 농업비즈니스 코디네이터 추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즉 토지문제에서부터 신규취농, 농업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 일본의 교토부의 단계별 취농 지원과 실천농장의 역할

일본 교토부의 취농 지원 체계는 그림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1단계 이직 및 이주 단계에서는 귀농 상담 및 농업 체험, 초보적인 연수 및 지역교류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농림수산성 잡카페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농림수산성 잡카페는 농업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되어 귀농 및 취농 종합상담창구 역할을 함. 구직과 관련한 모든 기관(우리의 고용플러스센터)들이 모여 있는 곳에 ‘농업파트’로 함께 참여하며 도시민의 방문이 수월하도록 교토역에 위치하고 있다. 분야별 3명의 상담원(영농 관

5) 일본 교토부 사례는 2016년 ‘서산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장기발전계획’의 연구 일환으로 이루어진 해외 현장 조사(2016년 10월 25~27일) 결과를 정리한 것임.

런, 귀촌 관련, 농업비즈니스 관련 전문가가 요일별)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담자들의 방문 이력이 체계적으로 누적된 면담 일지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농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연간 1,000명 방문하고 있지만, 취농하는 이들은 연간 50명 이상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역시도 취농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단계인 취농 단계에서는 지역 정주 및 농업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수가 진행되며, 인력양성 실천농장(최장 2년)과 지역 농업대학교(2년 과정), 교토부 단고지역에 위치한 실천형 학사(2년 과정)가 마련되어 있다.

인력양성 실천농장은 취농을 원하는 신규취농자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및 지역 정착과 관련한 실습 연수(취농준비형: 2년간)를 실시하고, 취농 직후 기술 습득 및 지역 정착(경영개시형: 1년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있다. 실천농장의 지대는 센터가 2년간 부담하고 있고, 기술지도자는 교토부가 소개해 주고 있으며 농촌 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정촌(지자체) 단위에서 후견인 제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측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고농업실천형학사는 취농을 위한 농업연수시설로 교단고시(京丹後市)에 위치하고 있다. 교단고시는 교토부 최대 규모 농업지역으로 1983년 대규모 농업 단지 마련을 위해 단고국영농지개발사업으로 농지가 조성되었으나 30여 년이 지나 현재는 농업인의 고령화 문제로 인해 대응책으로서 젊은 귀농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었다. 약 500ha 규모로 약 300명의 농가 및 농업법인이 채소와 녹차, 과수 등 대규모농업을 실시하고 있다. 2년간 단고농업실천형학사 과정(지역정착 조건, 2년간 무료 연수, 기숙사 제공, 공동으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이 생활비가 됨)을 거치게 되면 연수했던 농지를 임차 받거나 지역의 농지를 얻어 독립해 나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 주체로 나아가는 3단계에서는 독립 및 자영 취농 등으로 경영을 개시하거나 고용취농 및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해가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농업부문의 고용도 역시 청년취농의 하나로 인식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독립하거나 독립에 앞서 1년간 인력양성 실천농장을 통해 연수의 기회를 받을 수도 있으며, 농업법인에 고용될 경우 농 고용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교토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취농을 위한 준비 및 최종 형태인 경영 개시 과정에서 실천농장이 마련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며, 청년층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청년취농급부금이 실천농장 연수 및 실습 과정(준비형과 경영개시형)과 동시에 이루어져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



<그림 1> 일본 교토부의 취농 관련 지원 체계

한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청년층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천농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천농장 자체가 많지 않으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선진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어 농업 현장의 실질적이고 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응답하는 형태의 현장 조사 기반의 연구를 지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년창업농 지원금과 연계한 한국형 실천농장 지원 확립을 위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일본 교토부에서는 취농을 위한 준비 및 경영 개시 과정에서 실천농장 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청년취농급부금과의 연동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고 있어 이를 참고로

하여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한 영농정착지원금과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여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한국형 실천농장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3장 충남 청년 농업인의 현황 및 정책

1. 청년 농업인 현황

1) 충남 농가 및 청년층 인구 추이

2017년 현재 충남의 농가는 125,886호로 전국 농가 1,042,017호의 12.1%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의 농업인은 288,800명으로 전국 농업인 2,422,256명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단위에서는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1.7%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의 농가 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2.6%로 감소하고 있다. 농가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단위에서는 3.3%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충남에서는 4.4%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충남의 농가 인구 추이

구분	2010		2017		농가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인구 연평균 증가율 (CAGR)
	농가 (호)	농가인구 (명)	농가 (호)	농가인구 (명)		
전국	1,177,318	3,062,956	1,042,017	2,422,256	-1.7	-3.3
충남	151,424	394,324	125,886	288,800	-2.6	-4.4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충남의 농업인 인력 구조 현황은 다음과 같다.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60세 이상 농업종사자⁶⁾는 2010년 전국적으로 약 113만 명에서 2017년 약 12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충남은 2010년 약 15만 3천 명에서 2017년 약 15만 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0.2%로 감소하고 있다. 비중으로는 전국적으로는 2010년 55.6%에서 2017년 69.1%로 늘어났으며 충남은 2010년과 2017년 사이 56.6%에서 71.2%로 크게 늘어났다.

<표 2> 60세 이상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60세 이상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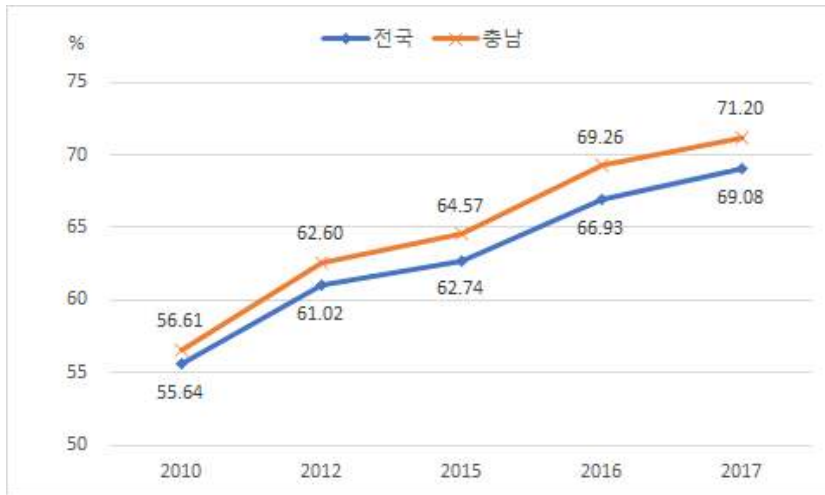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1,129,748 (55.64)	1,185,682 (61.02)	1,177,979 (62.74)	1,178,272 (66.93)	1,200,224 (69.08)	0.9
충남	152,776 (56.61)	160,618 (62.60)	148,926 (64.57)	148,008 (69.26)	150,254 (71.20)	-0.2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5.12.23 시행, 2009.9.27 전부개정, 1999.2.5 제정)에서 사용하는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2009.12.15, 2015.12.22 개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농업 종사자'는 두 번째 조건인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하여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그림 2> 60세 이상 농업종사자 비율(3개월 이상)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한편 2017년 현재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40세 미만 농업종사자는 전국 단위에서 2010년 115,583명에서 2017년 43,415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연평균 13.1% 감소하고 있다. 비중은 5.7% 이던 것에서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충남은 2010년 15,858명에서 2017년 5,14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연평균 14.8%의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중으로는 7년 사이 5.9%에서 2.4%로 큰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 3> 40세 미만 농업종사자(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40세 미만 종사자)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115,583 (5.69)	69,421 (3.57)	68,168 (3.63)	47,783 (2.71)	43,415 (2.50)	-13.1
충남	15,858 (5.88)	8,858 (3.45)	8,274 (3.59)	6,314 (2.95)	5,149 (2.44)	-14.8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그림 3> 40세 미만 농업종사자 비율(3개월 이상)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농업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 농업경영주 수는 전국적으로 약 70만 명(2000년)에서 약 74만 명(2015년)으로 늘어났으며, 비중으로는 51.0%에서 68.3%까지 증가하였다. 충남의 60세 이상 고령 농업경영주 수는 2010년 8만 8천 명에서 9만 3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비중으로는 49.3%에서 70.6%로 증가하였다.

<표 4>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706,148 (51.04)	741,815 (58.28)	716,557 (60.86)	743,303 (68.29)	0.3
충남	88,499 (49.29)	93,972 (57.58)	94,254 (62.25)	93,204 (70.60)	0.3

자료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조사.
주 : 농업경영주 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한편 농업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수는 2000년 약 91만 명에서 2015년 약 14만 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비중으로는 6.6%이던 것에서 1.3%로 크게 감소했다. 충남은 2000년 약 12만 명에서 2015년 약 1천 5백 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비중은 6.7%를 차지하던 것에서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5>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CAGR
전국	91,516 (6.61)	42,392 (3.33)	33,143 (2.82)	14,366 (1.32)	-30.9
충남	11,982 (6.67)	5,132 (3.14)	3,959 (2.61)	1,541 (1.17)	-33.6

주 : 농업경영주 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자료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조사.

영농경력 5년 미만 농업경영주 수는 전국이 2005년 49,840호에서 2015년 53,284호로 증가하였으며, 충남은 2005년 5,172호에서 2010년 4,723호로 감소하였다. 영농경력 5년 이하 농가경영주 가운데 40세 미만의 농가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이 2005년 15.9%에서 2015년 6.6%, 충남은 2005년 16.7%에서 2015년 6.9%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새롭게 농사를 지으려는 농가 역시 젊은 층의 비중이 크게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영농경력 5년 미만 농가 경영주 변화

단위 : 가구, %

연령대	전국				충남			
	2005		2015		2005		2015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39세 이하	7,903	15.9	3,543	6.6	862	16.7	327	6.9
40-49세	14,226	28.5	10,907	20.4	1,488	28.8	922	19.5
50-59세	14,543	29.2	19,810	37.1	1,431	27.7	1,629	34.5
60-69세	10,461	21.0	15,428	28.9	1,079	20.9	1,467	31.1
70세 이상	2,707	5.4	3,696	6.9	312	6.0	378	8.0
전체	49,840	100.0	53,384	100.0	5,172	100.0	4,723	100.0

자료 : 통계청(2005, 2015), 농림어업총조사.

2) 충남 귀농귀촌 인구 추이

2017년 충남의 귀농귀촌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원을 포함한 귀촌인구는 497,187명으로 2013년 대비 22.6% 증가하였고 가구원을 포함한 귀농인구는 19,630명으로 2013년 대비 13.4% 증가하였다⁷⁾.

7) 우선 귀농귀촌 정의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2월 23일 시행, 이하 귀농어귀촌법)하면서 귀농과 귀촌 정의를 수정하게 된다. '귀농어업인'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이외에 농촌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를 '귀촌인'으로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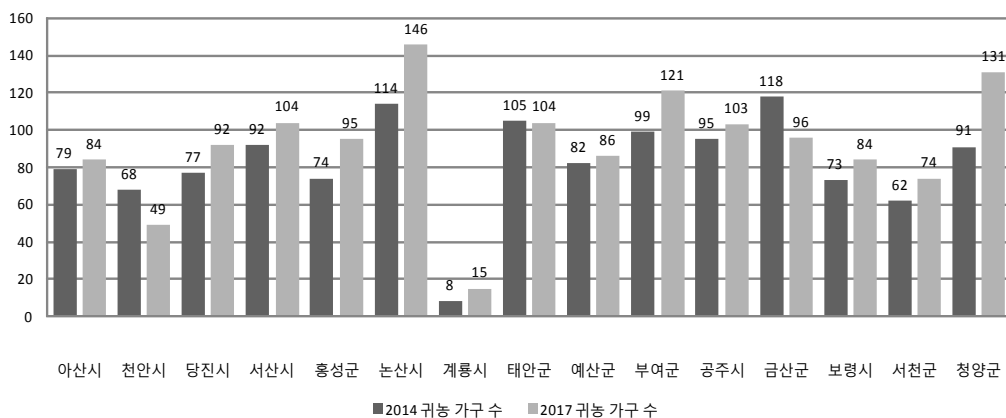
<표 7> 귀농·귀촌 인구 추이

단위: 명

구 분	'13년 (A)	'14년	'15년	'16년	'17년 (B)	증감 (B-A)
귀농·귀촌 인구	422,770	457,511	486,638	496,048	516,817	22.2
귀농인구	17,318	17,976	19,860	20,559	19,630	13.4
귀촌인구	405,452	439,535	466,778	475,489	497,187	22.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06.27.)

충남 시군별로는 2017년 귀농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논산시(146호), 청양군(131호), 부여군(121호)의 순이다. 귀농귀촌 정의 변경 전 자료를 활용한 2014년에는 금산군(118호), 논산시(114호), 태안군(105호)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2014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천안시와 태안군, 금산군에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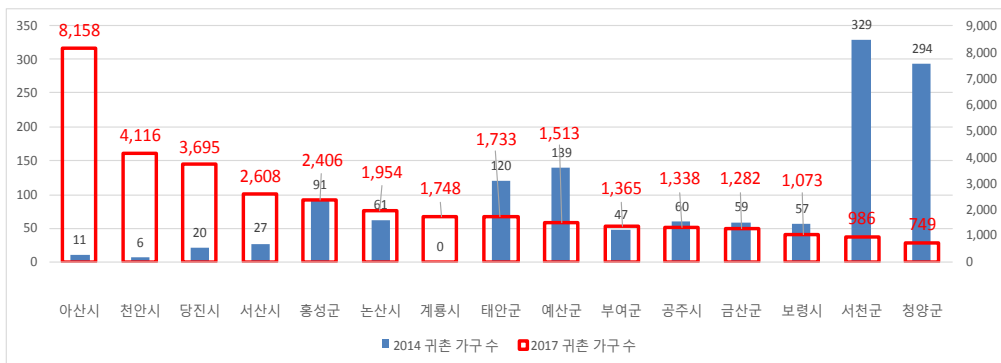


<그림 4> 2014년, 2017년 충남의 귀농 가구 추이(단위: 호)

자료: 김기홍(2018b)

주: 2014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촌 정의 변경 전 자료 활용, 2017년은 귀촌 정의 변경 후 자료 활용함

한편 충남 시군별 귀촌 가구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14년은 귀촌 정의 변경 전 자료를, 2017년은 귀촌 정의 변경 후 자료를 사용하여 귀촌 정의 변경에 따른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7년 귀촌 가구는 아산시(8,158호), 천안시(4,116호), 당진시(3,695호), 서산시(2,608호) 순으로 시 단위의 농촌 지역에 귀촌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전원생활 목적’이라는 의향이 반영되어 서천군과 청양군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그림 5> 2014년, 2017년 충남의 귀촌 가구 추이(단위: 호)

자료: 김기홍(2018b)

주: 2014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촌 정의 변경 전 자료 활용, 2017년은 귀촌 정의 변경 후 자료 활용함

귀농 가구원 수는 전국 2013년 17,318명에서 2017년 19,630명으로 13.4%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충남은 1,933에서 2,111명으로 9.2% 증가하였다. 귀농가구원 가운데 40세 미만 귀농 가구원은 전국 2013년 4,834명에서 2017년 4,788명으로 1.0% 감소한데 반해 같은 기간 충남은 526명에서 470명으로 10.6%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농가구원 가운데 4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전국적으로는 27.9%에서 24.4%로 3.5% 감소하였으며, 충남은 27.2%에서 22.3%로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농업경영주 및 농업종사자 가운데 40대 이하의 비율이 각각 약 1.2%, 약 2.4% 수준에

8) 이하 귀농귀촌 정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등 상세한 내용은 김기홍(2018b)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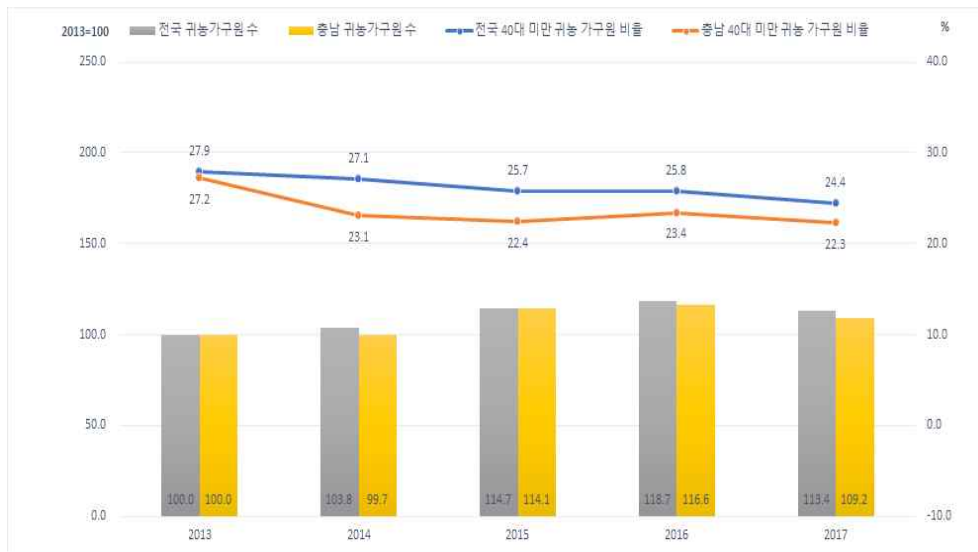
그친 것에 비하면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려는 귀농인의 40대 이하 비율이 약 10%에 이르고 있다. 귀농인을 포함하는 귀농가구원 가운데 40대 미만의 비율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귀농을 통한 젊은 층의 진입이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2013년에서 2017년으로 가면서 40대 미만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충남 귀농가구원 40대 미만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			2015			2017		
		전체	40대 미만	비중	전체	40대 미만	비중	전체	40대 미만	비중
전국	귀농가구원	17,318	4,834	27.9	19,860	5,108	25.7	19,630	4,788	24.4
	귀농인	10,312	1,174	11.4	12,114	1,168	9.6	12,763	1,340	10.5
	동반가구원	7,006	3,660	52.2	7,746	3,940	50.9	6,867	3,448	50.2
충남	귀농가구원	1,933	526	27.2	2,206	495	22.4	2,111	470	22.3
	귀농인	1,123	113	10.1	1,390	116	8.3	1,405	135	9.6
	동반가구원	810	413	51.0	816	379	46.4	706	335	47.5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그림 6> 2013년~2017년 귀농 가구 추이

자료 : 통계청(2018), 농림어업조사

3) 충남 친환경농업 관련 현황

충남의 친환경농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현재 농가 수는 4,321호이며, 면적은 5,229ha, 출하량은 43,955톤이다. 이 가운데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비율은 약 39.3%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인증 농가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11년도와 비교하면 농가 수는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약 67.2%, 출하량은 62.3%로 크게 줄어들었다.

<표 9> 충남 인증별 생산 현황(2017)

단위 : 호, ha, 톤, %

구분	유기 비율	계	유기	무농약
농가수	39.3	4,321	1,699	2,622
면적	44.6	5,229	2,333	2,896
출하량	35.9	43,955	15,789	28,166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8)

<표 10> 충남 연도별 친환경농업(저농약 포함)

단위 : 호, ha, 톤, %

구분	2011 (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b)	증감률 (c=b-a)
농가수	9,603	9,377	8,173	6,984	5,544	4,976	4,321	△55.0
면적	15,950	14,554	11,164	9,411	6,950	6,100	5,229	△67.2
출하량	116,636	97,220	113,852	73,993	51,713	50,634	43,955	△62.3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8)

<표 11>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생산(2017)

단위 : m², kg, %

구분	계		유기		무농약	
	재배면적	인증계획량	재배면적	인증계획량	재배면적	인증계획량
계	5,395 (100.0)	71,970 (100.0)	2,598 (100.0)	24,723 (100.0)	2,797 (100.0)	47,247 (100.0)
곡류	2,632 (48.8)	18,758 (26.1)	1,187 (45.7)	9,300 (37.6)	1,446 (51.7)	9,458 (20.0)
과실류	1,785 (33.1)	5,956 (8.3)	877 (33.8)	2,785 (11.3)	908 (32.4)	3,171 (6.7)
채소류	726 (13.5)	26,150 (36.3)	430 (16.6)	8,967 (36.3)	296 (10.6)	17,183 (36.4)
서류	77 (1.4)	2,564 (3.6)	11 (0.4)	395 (1.6)	66 (2.4)	2,169 (4.6)
특용작물	25 (0.5)	225 (0.3)	10 (0.4)	33 (0.1)	15 (0.5)	192 (0.4)
기타	150 (2.8)	18,317 (25.5)	83 (3.2)	3,243 (13.1)	67 (2.4)	15,074 (31.9)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8)

<표 12>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2017)

단위 : ha, %

구분	유기 비율	계	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	
					순위	비율
계	26.1	78,433.0	24,460.3	57,972.7	—	100.0
강원도	33.4	4,061.2	1,356.8	2,704.4	7	5.2
경기도	31.0	5,368.7	1,664.7	3704	3	6.8
경상남도	33.0	5,019.8	1,656.4	3,363.4	5	6.4
경상북도	24.1	4,501	1,086.3	3,414.7	6	5.7
전라남도	18.7	42,346.1	7,923.6	34,422.5	1	54.0
전라북도	32.0	6,280.3	2,009.4	4,270.9	2	8.0
제주도	61.3	2,388.4	1,464	924.4	9	3.0
충청남도	44.6	5,228.9	2,333.2	2,895.7	4	6.7
충청북도	29.8	3,238.6	965.9	2,272.7	8	4.1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8)

<표 13> 충남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2017)

단위 : ha

구분	친환경 인증 면적				전체 경지면적	친환경 인증 비율	
	유기	무농약	계	순위		비율(%)	순위
천안시	145	200.5	365.5	7	13,271	2.75	7
공주시	315.9	299.1	615.0	3	10,338	5.95	2
보령시	28.9	197.4	226.3	10	12,910	1.75	8
아산시	326.6	128	454.6	6	15,147	3.00	6
서산시	68.7	73.7	142.4	11	26,305	0.54	13
논산시	44.4	241.4	285.8	9	18,886	1.51	10
계룡시	0.5	0	0.5	15	388	0.13	15
당진시	37.4	103.2	140.6	12	24,566	0.57	12
금산군	14.3	35.4	49.7	13	7,665	0.65	11
부여군	267.6	564.9	832.5	1	15,902	5.24	3
서천군	133.4	436	569.4	4	13,270	4.29	4
청양군	467.9	227.6	695.5	2	8,350	8.33	1
홍성군	378.1	113.6	491.7	5	13,423	3.66	5
예산군	66	243.8	309.8	8	18,721	1.65	9
태안군	39	10.6	49.6	14	14,097	0.35	1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8)

<표 14> 충남 시군별 친환경 인증 농가(2017)

단위 :호

구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전체농가	전체농가 대비 친환경농가 비율	
	유기	무농약	계	순위		비율(%)	순위
천안시	181	191	372	6	12,126	3.1	6
공주시	113	134	247	8	9,740	2.5	8
보령시	27	155	182	10	8,418	2.2	10
아산시	345	157	502	4	8,851	5.7	5
서산시	42	84	126	11	10,319	1.2	13
논산시	31	211	242	9	10,609	2.3	9
계룡시	5	0	5	15	542	0.9	15
당진시	16	109	125	13	11,946	1.0	14
금산군	25	101	126	11	6,379	2.0	11
부여군	159	375	534	1	8,902	6.0	4
서천군	77	452	529	2	6,471	8.2	1
청양군	188	225	413	5	5,899	7.0	2
홍성군	362	156	518	3	8,553	6.1	3
예산군	41	253	294	7	9,922	3.0	7
태안군	92	14	106	14	7,207	1.5	12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8)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우 2000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60,275명 가운데 39세 미만이 5,173명으로 8.6%, 60대 이상은 24,701명으로 4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농가의 39세 미만의 비율과 60세 이상의 비율이 각각 6.6%, 51.0%인 것에 비하면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령 농가의 비율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9세 미만의 비율은 이후 2010년에는 2.4%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60대 이상의 비율은 2005년 48.1%, 2010년 59.9%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가운데 39세 미만은 2000년 6.7%, 2005년 3.7%에서 2010년에는 약 2.8%(108명)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 농가 가운데 39세 미만의 비율 2.6%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이다. 2010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가운데 60세 이상의 수는 2,107명으로 약 55.5%였으며, 전체 농가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인 62.2%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0년 42.6%, 2005년 46.9%에 비해 점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5>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연령대별 분포

단위 : 호

구분		2000		2005		2010	
		전체 농가	친환경 실천농가	전체 농가	친환경 실천농가	전체 농가	친환경 실천농가
전국	전체	1,383,468 (100.0)	60,275 (100.0)	1,272,908 (100.0)	87,199 (100.0)	1,177,318 (100.0)	58,441 (100.0)
	39세 미만	91,516 (6.6)	5,173 (8.6)	42,392 (3.3)	3,620 (4.2)	33,143 (2.8)	1,382 (2.4)
	60세 이상	706,148 (51.0)	24,701 (41.0)	741,815 (58.3)	41,908 (48.1)	716,557 (60.9)	35,003 (59.9)
충남	전체	179,550 (100.0)	9,786 (100.0)	163,197 (100.0)	9,197 (100.0)	151,424 (100.0)	3,795 (100.0)
	39세 미만	11,982 (6.7)	677 (6.9)	5,132 (3.1)	338 (3.7)	3,959 (2.6)	108 (2.8)
	60세 이상	88,499 (49.3)	4,172 (42.6)	93,972 (57.6)	4,313 (46.9)	94,254 (62.2)	2,107 (55.5)

자료 : 통계청(2000, 2005, 2015), 농림어업총조사

주: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연령별 조사항목이 없어짐

2015년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2.1%, 60대 이상이 63.7%이다. 이는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와 비교하면 5년 사이 30대 이하의 비율은 다시 줄어들고 있고 60대 이상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역시 고령화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연령 분포(2015)

단위 : %

연령	유기	무농약	전체
30대 이하	2.1	2.2	2.2
40대	9.6	9.5	9.5
50대	25.9	24.3	24.6
60대	30.4	30.2	30.2
70대 이상	32.0	33.8	33.5
합계	100.0	100.0	100.0
평균 연령(세)	63.9	64.0	64.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6)

재인용 : 김창길 외(2016),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방안, 농촌경제연구원.

2. 청년 농업인 정책

1) 정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1) 정부의 농업인력육성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방향

농림축산식품부는 4대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해서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으며 주로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 초점(농식품분야 청년창업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귀농·귀촌 활성화)을 두고 있다. 단위사업은 크게 ‘농식품 산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농업인력 육성’, ‘농업법인 내실화 및 인력불균형 해소’로 구분된다.

청년 농업인 육성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2017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창업농 육성 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청년 농업인 1만 명 육성 계획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⁹⁾.

세부 내용으로는 독립경영 3년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전국 1,200명으로 총사업비 10,725백만 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지원 금액은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2018. 4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2018년 올해 1,200명이 선정되었고, 8월에는 추가로 500명이 선정된 상태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농장(온실) 조성 및 임대 사업 지침(안)’을 내놓았다. 사업 목적으로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창업 후 실패 가능성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

9) 본 사업은 2016년 실시된 청년농어촌산업창업지원사업에서 시작된 것으로 당초 청년층 가운데 새롭게 농업에 진입할 경우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신규취농자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마련되었으나 기재부의 지적으로 정산 형태로 변형되면서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귀농인들의 참여는 어려워지게 되었음. 현재는 후계농업인이 주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산 대신 직불카드 사용(바우처 형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 하여 청년 농업인(영농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임대' 하는 것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 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할 경우(경영주 등록 필요) 임차기간 동안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목적은 실천농장과 비슷하나 사업 주체(지자체 및 농어촌공사)를 비롯하여 사업 운영 체계 및 청년 농업인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2)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 농업인 육성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2월에는 귀농귀촌지원종합계획(2017~2021)을 발표하고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이라는 비전 아래 5년간 청년(2030세대)층 귀농 창업을 1만 가구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큰 화두인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귀농 정책 부분에서도 청년층 농업창업에 힘을 실기 시작했고 교육 체계 개편과 일자리 연계 등을 강화한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농촌 활력 증대를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태이다(김기홍, 2018b).

지금까지 중앙 정부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귀농귀촌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13년 귀농어귀촌법 입법 과정에서부터는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기존의 유입 정책 기조에서 안정적인 정착 쪽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따라 2015년 1월에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2월 23일 시행. 이하 '귀농어귀촌법')을 제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어귀촌법을 제정하면서 귀농과 귀촌의 정의를 기존의 '농업'과 농촌에서의 '전원생활 등의 목적'으로 구분하던 것에서 수정을 가하게 된다. 귀농어귀촌법에서는 "귀농어업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¹⁰⁾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¹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

10)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¹²⁾으로 두고 있다. 한편 “귀촌인”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¹³⁾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한 자는 ‘귀농어업인’, 이외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자는 ‘귀촌인’으로 정하고 있다. 귀촌인의 경우 학생과 군인,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는 귀촌인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실제 지원 대상과 구분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귀촌 정의의 변경으로 현재 귀촌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30대 이하 귀촌인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2) 충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1) 충남의 농업인력육성 관련 정책 방향¹⁴⁾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부터 3농혁신이라는 농정 방향 속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1단계(2011~2014)에서는 11대 추진 분야 가운데 ‘지역리더 양성’에서 다루어져 ‘농어촌 지역리더 양성’과 ‘미래 농업을 선도할 농업 CEO 양성’이라는 시책으로 진행되었으며 ‘귀농귀촌’과 관련된 부분은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 운동 가운데서 진행되었다. 2단계(2015~2018)에서는 5대 혁신 가운데 ‘역량혁신’에 위치하며 그 중에서도 세 개로 나누어진 세부 테마 가운데 ‘인재육성’ 파트에서 다루어져왔다.

3농혁신 1, 2단계의 농업인력육성은 내발적 발전과 참여형 거버넌스라는 큰 틀 가운데서 그 중요성은 각인되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단계 계획에서는 내발적 발전 및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이라는 큰 틀 가운데서 인적 교류를 통한 도농공동체 유지를 위한 측면에서 다루어졌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13)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14)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 계획(2018). 필자 작성 부분

으며, 2단계 계획에서는 참여형 거버넌스라는 큰 틀 가운데 중소고령농 보호 및 지역혁신리더 육성이라는 로컬전략과 다른 한편으로는 전업농 육성 및 산지조직화를 통한 규모화, 전문화라는 시장전략의 두 트랙으로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는 1,2단계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리더 양성 및 후계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청년 농업인 4-H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목표수립, 지역사회 적응, 영농정착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고 농어촌 마을과 관련한 리더 양성에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인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3농혁신이 가지는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이라는 큰 틀 가운데 그 주체가 농어업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력’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역 리더층의 역량 쪽에 집중되어 실제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충남만의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농업인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체계가 마련되지는 못했으며 특히 지역농업의 승계라는 지역성이 반영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다.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농업인력 교육 기관과 연계 속에서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도와 시군 차원의 인력 양성 역할 분담 노력이 부족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 단위 농촌 일손 및 농업인력시장 체계 구축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농업인력육성 관련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리더 육성, 농어촌 후계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품목별 대표자 육성 및 농어촌 주민 평생교육 강화, 귀농하기 좋은 충남 조성, 여성농업인 영농향상 및 농촌보육복지 지원체계 구축,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 등을 내세우고 있다. 청년 농업인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주로 4-H와 귀농인에 대한 세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충남의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 농업인 육성

충남은 정부의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지침에 따라 2009년 7월 20일,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2009년 7월 제정. 2015년 9월 개정 및 시행)를 제정하였다. 현재는 2017년 정부의 ‘귀농귀촌 5개년 계획 수립’에 발맞추어 충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변화

기조에 맞추어 청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귀농·귀촌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이라는 비전 아래 5년간 청년 등 귀농창업 6,500가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청년 후계 인력 유입과 소득 창출 지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30세대 청년층 타킷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며, 둘째 귀농귀촌 개인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융화 지원을 강화하여 공동체 활력 창출 프로그램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귀농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귀촌인에 대한 농업 취창업 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 수요와의 연계를 통한 귀촌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충청남도 농업기술원, 2017).

충남 조례에서는 “귀농어업인”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가족이 충청남도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농어업과 관련 산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충청남도로 이주한 사람을 ‘귀농어업인’으로 두고 있으나, 귀촌인은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2030세대의 귀촌인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청년층 육성을 위해서라도 귀촌인에 대한 지원 대상 포함과 그에 따른 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3)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충남의 청년 농업인 관련 지원 정책 사업(2018년 현재)은 표17과 같다. 청년 농업인을 후계 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 귀농인과 귀농인이 아닌 자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농업(창업, 취업, 교육)과 농업 외(소득, 주거, 공동체), 통합지원으로 나누어 현재까지 지원된 정책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김기홍, 2018a). 이 가운데 ‘실천농장’은 ‘농업’ 가운데서도 성격상 ‘교육’에 해당하며 귀농인과 귀농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교육 부분에서 제안한 ‘교육농장 프로그램’ 15)에 해당한다.

충남 자체 사업으로는 도시청년농업농촌캠프운영, 도시청년 초보농부 네트워크 조성, 영농

15) 당시에는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여 ‘교육농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실천농장 형태를 제안하였으나, 현재 ‘교육농장’이란 용어는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농장 혹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농장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와 차별하여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

4-H영농정착지원, 농가숙박형 귀농귀촌교감프로그램,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이 있다. 충남의 청년 농업인 관련 지원 정책 사업은 대상으로는 예비청년 농업인인 도시청년, 농고생, 농대생, 그리고 귀농희망 가족(농가숙박형 프로그램)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후계농업인 대상 정책 사업은 주로 4-H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농업 창업 및 농업 교육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지만, 청년 귀농인 대상의 교육 사업은 일반 귀농귀촌 교육과 멘토링 지원 사업에 포함된 채로 시행되고 있다. 후계농업인은 물론 귀농인이 아닌 자(도시민 포함)에 비해서도 훨씬 적다. 취업과 관련 정책 사업은 전혀 없다. 특히 귀농인이나 귀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농업에 대한 교육 과정을 거쳐 창업에 이르는 사이에 필요한 생활비 조달을 위한 일시적인 일자리나 농업을 실습하고 경험이 가능한 고용 형태의 사업이 절실하다. 농업 외 부문에서는 소득 확보나 공동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없으며, 귀농인과 귀농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귀농인의 집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이 크게 다른 상황이다. 최근들어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편이지만 운영 규모 측면이나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내실이 미약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김기홍, 2018a).

<표 17> 충남의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사업

구분	성격	후계농업인	귀농인	귀농인이 아닌 자
농업	창업	-4-H영농정착지원사업(2010~2017)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2018~)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사업(2017)	-청년농산업창업지원(2016)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2018) -청년창농안정지원(2016~2017)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2017~) -귀농귀촌정착지원(귀농귀촌설명회)	-귀농귀촌정착지원(귀농귀촌설명회) -(대학생)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교육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2015~2016) -4-H대학운영(2016년부터 창농스쿨 전환)(2013~2017)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멘토멘티제)(2013~2017) -귀농귀촌 교육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2016~2017)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2017)

구분	성격	후계농업인	귀농인	귀농인이 아닌 자
		-청년 농업인 전문기양성 PETC 프로젝트(2017) -영농승계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2017) -4-H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지원(2017)		-농기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2016~) -귀농귀촌 교육 -(고교생)특성화농고 인력 육성 프로그램
농업외	소득			
	주거		-귀농귀촌정착지원(귀농인의 집) -귀농 주택자금 지원	
	공동체			

자료: 김기흥(2018a)

자료: 충청남도 3농혁신 백서(2018), 2018년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계획

주: 충남 농업정책과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지원만 수행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청년 농업인 대상인 만 39세를 넘는 사업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만 49세 이하 모든 농업인)과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65세 이하 귀농인, 주택자금은 연령제한 없음)사업이 있음.

<표 18>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내용

사업명	지원 내용	시기	지원주체
4-H 영농정착지원사업	4-H 발굴 및 지원 419명. 22,711백만원(1인당 65백만원)	2010~2017	농업기술원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생산 가공 등 성장기반 지원 15시군 12명. 840백만 원(개소당 70백만 원)	2017	농업기술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신기술 결합 사업 지원 11개소 550백만 원 (개소당 70백만 원)	2015: 5개소 2016: 6개소	농업기술원
4-H 대학 운영	역량강화 교육. 530명 대상 2016년부터 창농스쿨 전환 운영	2013~2017	농업기술원
청년 농업인 전문기양성 PETC 프로젝트	선진농업경영 선진 노하우 습득. 14시군 31명. 네덜란드 방문	2017.3.21~29	농업기술원
영농승계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영농승계자 대상 심리적, 물리적 네트워크 강화. 14시군 131명	2017.3~7월 5회	농업기술원

사업명	지원 내용	시기	지원주체
4-H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지원	4-H회 활동지원		농업기술원
도시청년 농업농촌캠프	도시청년(대학생) 농업농촌 이해 증진 총 5회. 175명. 2016: 3회 94명. 2017: 2회 81명	2016 2017	농업기술원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농업농촌 진입 위한 다답돌 교육. 185백만 원 10개 농장(멘토 12명 12개 작목). 연수생 15명	2017	농업기술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 대상. 12시군 30명. 300백만 원	2016~2017	농업기술원
청년 창농 안정 지원	창업초기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1년간 9.6백만 원/1인		농업기술원
귀농귀촌(신규농업인) 현장실습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또는 39세 이하 청장년 14시군. 멘티 291명. 월 80만 원(4~7개월) 지원	2013~2017	농업기술원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 청년 농업인 지원 육성단계 22명. 880백만 원(1인당 40백만 원), 창업단계 20명 지원 800백만 원	2018(육성 단계 선발) 2017.8선발 (2018년 실시)	도청 친환경 농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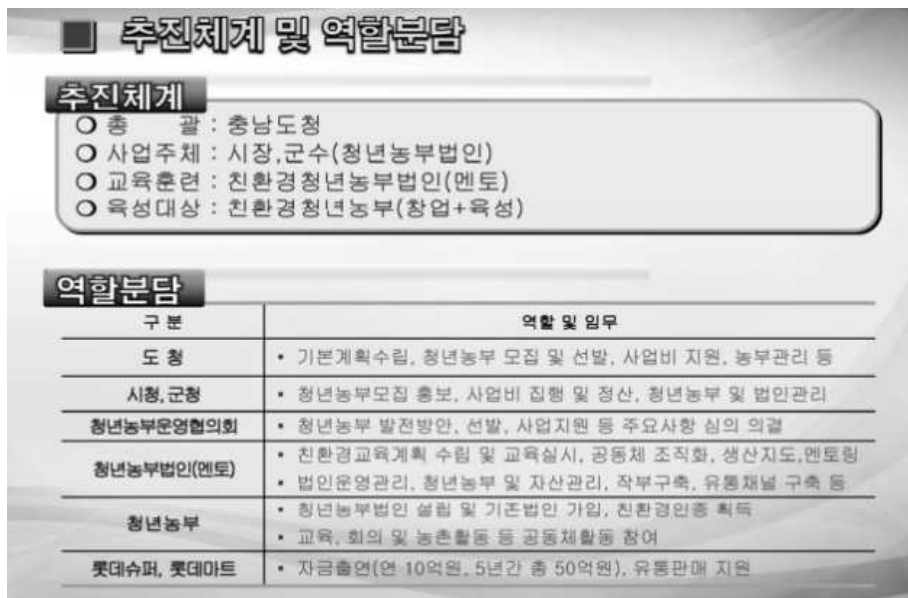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3농혁신 백서(2018) 및 2018년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계획

3) 실천농장 관련 사업

여기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가운데서도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실천농장과 유사한 목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 3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청년농부 사업과 농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귀농 장기교육기관 사업, 그리고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서 실시 중인 현장실습교육(WPL: Work Place Learning)사업이 있다.

(1) 충남의 친환경청년농부 사업

충남에서는 2017년부터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고령화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하는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업 추진체계는 그림 7과 같다. 총괄은 충청남도청이 하고 있으며, 사업 지원 주체는 시장, 군수이며 사업 주체는 청년농부법인이다. 지역 멘토의 책임 아래 창업과 육성 농부를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7> 충남의 친환경청년농부 사업 추진체계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창업단계와 육성단계)은 5년간 총 250명을 선발(매년 50명 수준)하고자 하고 있다. 5년 후인 2022년에 인증면적 목표를 70ha(매년 신규 14ha/ 1인당 1,400m²)로 두고 있다. 친환경 채소류를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단계는 롯데가 100% 지원하며 1인당 4천만 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육성 단계는 도비가 24%, 시군비가 56%, 자부담 29%로 역시 1인당 4천만 원이 지원된다. 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와 유통 관련 시설, 농기자재 등에 지출이 가능하다. 2017년 8월 청년농부 1기를 선발하였고, 창업 20명, 육성 22명으로 총 42명이 선발되었고, 내년 사업에는 2018년 10월, 창업이 30명, 육성이 29명 선발된 상태이다.

(2)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

청년귀농 장기교육 과정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에 발맞추어 청년 귀농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현장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 기관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귀농 예정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형 장기교육 기관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년 혹은 6개월 장기교육 과정으로 교육 인원은 50명 정도 이다. 공모 대상은 농업관련 법인으로 영농조합, 농업회사,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 현장실습교육(WPL) 등의 형태가 가능하다. 다만 고등 교육법에 해당되는 농업 교육 기관인 농고, 농대, 한국농수산대학 등은 제외하고 있다.

참가 자격으로는 농업교육이 설립목적(정관 적시 필수)이며 청년 귀농 장기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자, 1차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중 실습 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농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규모로는 청년 귀농 희망자 5명 이상에서 10명 이내에서 교육 훈련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교육생의 숙박 및 학습 시설을 보유한 법인이어야 하며 지역 내 권역사업 및 정부지원 사업 등으로 구축된 시설, 공간을 업무협약 등을 통해 본 교육 운영 시 활용 가능한 경우도 해당된다. 또 귀농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강사풀 보유 또는 활용 가능한 법인이어야 하며 농업마이스터, 신지식인농업인, 현장실습교육(WPL) 지도교수 등도 가능하다. 청년귀농장기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 이상의 상시

근무 가능 인력을 보유한 법인으로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기준으로는 교육 대상을 만 40세 미만의 귀농 예정 청년으로 귀농을 위한 기초역량을 갖춘 자로 하며 교육 농장 개소당 5명에서 10명 이내(단, 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제외)로 하고 있다. 교육 시간은 6개월 교육 가운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교육 구성으로는 청년층이 성공적인 창농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실제 복합농업 활동과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론, 실습, 토론, 견학, 지역 활동, 창업계획서 작성 등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생별 선택 작목 대상 직접 재배를 통한 영농 기술 교육도 필수로 포함하고 있다. 생산 활동 실습은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교육비 지원 총액 1인당 11,200,000원으로 국고 7,840,000원, 자부담이 3,360,000원(국고70%/자부담30%)이다. 자부담은 교육생 자부담 1,680,000원/인, 운영기관 자부담 1,680,000원/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3) 현장실습교육(WPL: Work Place Learning) 사업

현장실습교육은 후계농과 농고·농대생 등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 창업 및 실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교육을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미래농업선도교(3개교, 433명), 농고산업연계교육(14개교, 6,470명), 농대 영농창업특성화(5개교, 396명), 농대미래전문농업경영인과정(10개교, 3,428명), 청년창업농(1개교, 568명)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졌다.

<표 19> 2018년 현재 현장실습교육장(WPL) 지정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정	54	—	12	15	15	14	9	14	10	6
지정취소	—	1	1	3	—	—	—	3	8	10
운영	54	53	64	76	91	105	114	125	127	123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2018년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사업: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추진경과로는 2008년 6월 '新농업교육체제'를 기반으로 실습형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현장실습교육장(WPL)을 지정해오고 있다. 2009년 53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4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17개소는 지정을 취소하여 현재 126개소가 운영 중이다.

사업 대상으로는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계학교, 농산업분야 교육기관 등이 가능하며 지역품목실습장의 대표(현장교수)는 농업인(전국대표실습장 제외)이어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예산은 1,890백만 원(2019년, 1,890백만)으로 농업인은 국비 70%, 자부담 30%이고, 농고·농대생은 국비 100%, 청년 농업인의 경우 국비 80%, 자부담 20%으로 한다. 강사비, 숙박비, 식비, 실습재료비, 원고비, 교재비 등이 지원된다.

분야는 3개 분야(농업, 축산, 기타)로 구분되며, 분야별 세부품목으로 현장실습교육장(예: 토마토, 한우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형으로는 전국대표실습장, 지역품목실습장이 있다. 전국대표로는 대학, 연구소 등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상시 교육운영이 가능한 실습장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충남은 1개소로 연암대학교가 지정되어 있다. 지역품목실습장은 선도농업인의 기술·노하우 전수를 위해 교육장, 강의역량을 갖춘 농가 단위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충남은 총 16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지정 규모는 10개소 내외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2017년까지 12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나, 현장실습교육 수요 증가와 부실 실습장 정비를 연계하여 130개소 수준에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20> 현장실습교육 사업 중 전국대표실습장 현황(2018년 현재)

시도	2009년 (6개소)	2011년 (0개소)	2012년 (1개소)	2013년 (1개소)	2014년 (2개소)	2015년 (1개소)	2016년 (1개소)	2017년 (0개소)
경기(2)	-	-	-	-	여주농업 경영전문 학교	한국마사 회*	-	-
강원(1)	-	-	-	-	-	-	-	-
충북(1)	-	-		흙살림연 구소	-	-	-	-
충남(1)	연암대학 교	-	-	-	-	-	-	-
전북(2)	-	-	-	-	전라북도 축산위생 연구소 축산시험 장	-	한국농수 산대학	-
전남(2)	전남대, 순천대	-	-	-	-	-	-	-
경북(1)	경북 축산기술 연구소	-	-	-	-	-	-	-
경남(2)	-	-	경상대 농생명과학대학	-	-	-	-	-

주: 한국마사회(말산업인력개발원)는 3개 교육장(경기 과천·고양, 제주 제주)를 지정하였으나 1개소로 인정하였고, 전남대는 2개 교육장(전남 나주, 광주 북구)을 지정하였으나 1개소로 인정하였음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18), 2018년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사업: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표 21> 현장실습교육 사업 중 지역품목실습장 현황(2018년 현재)

시도	2009년 (37개소)	2011년 (9개소)	2012년 (9개소)	2013년 (13개소)	2014년 (8개소)	2015년 (8개소)	2016년 (13개소)	2017년 (10개소)	2018년 (6개소)
대전 (1)	-	-	앨리스팜	-	-	-	-	-	-
경기 (9)	(주)이랜드에이, 아남주자연리베섯	서해양농조합 법인 은성관광농원	-	산머루농원 (주)하바너스	-	랜드팜, 지랜드	이든팜	-	-
강원 (9)	홍삼팜, 청야농장	에덴양봉원	-	평창종마 법인	산들누리	금돈	헬로토마 토농장	유기농사 랑농원	-
충북 (12)	청개구리쌀마을, 일월성 목장, 충북그루연구소, 임흥과수연구소, 성삼농원	청원목장, 청토칠꿀	충립과수 묘목영농 조합법인	대림묘목 농원	-	-	꽃댕이농원	-	-
충남 (16)	(주)청정인삼, 증산목장, 산과들예말가농장, 버섯들농장, 은일농산 세도영농회사	-	-	놀외인삼, 외가집	(주)미마지, 굿모닝딸 기농원	아산 아름다운 정원	이삭가전 통식품, 금홍한우	다나딸가농장, 예산시과외인 청홍버섯영농 조합법인	잠뱅이농장 (딸기)
전북 (13)	영광포도원, 한민농장, 홍로원 (주)북한농장, 신간승농장, 남원모던	-	온생명영농 조합법인	술솔포도원	임실참생 명협동조 합, 애농	-	아침예딸기, 베리밸리	-	청정베리팜 (블루베리), 로컬랜드(포 도,6차산업)
전남 (14)	우리원 등대유기영농조합법 인 두라농원 청람농원 서당골훈장단감농원	-	산수유, 수암영농 조합법인	햇잎이슬 농원	-	동인농장, 오산흑염 소농장, 하모니농장	배체협방 농장	현화농장	-
경북 (18)	(영)안동민속티엔알, 김영표버섯명가, 용수농원, 주신福농장	(주)송광매원 가파버섯영농 조합법인 23살농부	차산영농 조합법인	두레네 오마케팅	청화원	-	한운농장, 두만농장	(주)동백농원, 경북곤충, 문경물	가마고개 (표고)
경남 (19)	명강야지 사과밭, 샛별농원, 류잔농원, 웰빙그린딸기농장, 희복양돈장, 우경농장	해뜰목장	(주)영령조청 한과, 창경생태기능 학교, 봉농원	산딸기맛집, 봄춘농장, 다감농원	동심결농원, 에덴영농 조합법인	콩이랑농원	한림알로에, 그리운순 이농원	-	자리산환양록 돼지영농조합 법인(양돈), 이테목장(축 산6차산업)
제주 (4)	우아농산	-	-	-	-	-	청원농장	샛별한라봉 농장, 가피물	-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8), 2018년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사업: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4) 충남의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의 위계

일본 교토부 사례와 비교를 통한 본 연구 대상인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의 위계는 표22와 같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귀농 초기 단계인 1단계의 지원은 국내에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2단계인 지역정주 및 본격적인 연수 과정은 국내의 경우 선도 농가 멘토제나 농업기술센터의 귀농 교육 등에 그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 미흡하다. 마지막 창농의 3단계의 경우 국내에는 고용 취농의 개념은 없으며, 일본의 경우 창농 단계에서도 1년간의 실천농장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1단계를 거쳐 창농이라는 3단계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 체계적인 실천농장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한편, 청년취농급부금이 이러한 실천농장 등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2> 일본 교토부 사례와 비교를 통한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의 위계

일본 교토부				국내	
<div>1단계</div> <div>-상담 -체험 -초보적인 연수 -지역교류</div> <div>이직/이주</div>	<div>농림수산물 잡카페</div> <div>- 귀농상담 - 세미나, 농업체험(농업체험응원사업)실시 - 관련사업주체간 모임 및 교류회 개최 - 현지견학, 연수처 소개 등</div>			귀농 초기 지원 단계 존재함	
<div>2단계</div> <div>-지역정주 -본격적인 연수</div> <div>취농</div>	<div>청년취농 급부금(준비형)</div> <div>1,500만원/연 최장 2년간</div>	<div>인력양성 실천농장 (취농준비형)</div> <div>실천적연수(최장2년간) 후 연수지에서 독립·자영취농(지역정착)</div>	<div>농업대학교</div> <div>강의/실습으로 체계적 기술습득(2년간)</div>	<div>단고농업 실천형학사</div> <div>단고국영농지(최대 규모발농사지대)취농지원(2년간)</div>	지역정주 및 본격적인 연수 과정 미흡 실천농장이 필요한 지점
<div>3단계</div> <div>-독립·자영취농 경영개시 -고용취농 및 안정고용의 확보</div> <div>지역농업주체로</div>	<div>청년취농 급부금(경영개시형)</div> <div>1,500만원/연(소득 반영변동) 최장 5년간</div> <div>청년취농자금</div> <div>경영개시 필요자금 장기무이자융자</div>	<div>독립·자영취농</div> <div>인력양성 실천농장 (1년간)</div> <div>* 인력양성 실천농장(취농준비형) 혜택을 받지 않은 자 대상</div>	<div>고용취농</div> <div>농 고용사업</div> <div>농업법인에 정규 고용·법인독립 지원</div>	독립·자영은 존재하나 고용취농의 개념은 없음 자영 단계에서도 실천농장을 거칠 수 있음	

제4장 청년 농업인 육성 실천농장 실태 조사

1.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 현황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현재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하였다. 농업 관련 목적과 교육 기능, 운영 주체 등을 차별화 하지는 않았고, 다양한 형태로 청년층 농업인을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실천농장의 대상지 선정에는 본 연구의 자문위원 2명의 도움을 받았다. 전략과제 성격상 충청남도를 기본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농장 자체가 전국 단위에서 많지 않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 가운데는 실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농장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1년 만에 그 만듦 곳도 있었고, 방문한 대상지에서 다시 추천을 받아 대상지로 선정된 곳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 대상인 실천농장은 총 8개소로 하였다. 이들 실천농장은 외연상 귀농귀촌 지원 측면에서 진행되는 곳과 자체적으로 발생한 곳, 마지막으로 충남도에서 진행 중인 친환경농부육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귀농귀촌 지원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군 체류형농업창업교육센터, 전라북도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강원도 화천군 현장귀농학교 3개소가 있다. 다음으로 농장 자체적으로 청년층 육성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감물생태학습관, 충청남도 홍성군 젊은협업농장, 전라남도 곡성군 향꾸네협동조합 3개소가 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자체 사업인 충남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는 논산시 들녘영농조합법인과 아산시 아름드리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있다.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 조사

대상지는 표와 같다.

조사 기간은 8월 16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해당 농장 당 1~3시간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은 해당 농장의 책임자 및 멘토로 하였다. 크게 관련 현황과 운영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표 23은 실천농장 조사 대상지 개요이다.

<표 23>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 조사 대상지 개요

성격	농장명	지역
귀농귀촌 지원	금산군 체류형농업창업교육센터	충남 금산군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전북 순창군
	화천군 현장귀농학교	강원 화천군
자체 사업	밀양감물생태학습관	경남 밀양시
	젊은협업농장	충남 홍성군
	항구네협동조합	전남 곡성군
충남 친환경청년농부 사업	들녘영농조합법인	충남 논산시
	이름드리영농조합법인	충남 아산시

2) 조사 결과

(1) 실천농장 현황 분석과 결과

실천농장의 현황 분석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8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나가고자 한다. 해당 농장의 설립 시기와 청년 관련 사업 시기, 2018년 현재 교육생 수, 관리자, 실천농장의 취지, 교육 기간, 관련 지원 사항,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각 조사 항목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공통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현황 세부 내용이 반드시 공통적인 항목에 의해 정리된 것은 아님을 미리 밝힌다.

우선 실천농장의 설립 시기는 절반 정도가 실천농장 자체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나머

지 네 곳에서는 농장 혹은 관련 단체가 만들어지고 청년층 유입과 교육적 기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는 2009년, 2013년으로 5년 이상 된 곳과 2017년 전후로 최근에 만들어진 곳이 많았다. 2018년 현재 교육생 수는 4명에서 5명 정도였으나 밀양은 한 명도 없었고, 논산은 12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관리자는 책임자 1명 이외에 2명, 3명 정도 수준이었다. 취지로는 대체적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으로 두고 있었고, 아산과 논산은 친환경농부 사업이 계기가 되었다. 교육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일 년으로 하고 있었다.

필요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실천농장이 농업인 외에도 청년 농부라는 다양한 청년층을 육성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농업이 맞는지 농촌 정착이 가능할지 등 진로탐색을 강화하는 교육적 기능으로 자리 잡아야 함을 전제로 하였고, 이에 맞추어 다양한 지원 사항이 제안되었다. 단중기 교육 과정의 개설과 지역 이해 과정, 지역 멘토의 활용 등이 제안되었고, 주거문제, 생계비, 생활비 등 보조는 물론 농장 운영비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자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지원 체계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지역 단위에서는 면 단위 설립과 지역 시설 활용, 중간 지원조직 등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의 연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이 언급되었다.

<표 24> 실천농장 8개소 현황 대조표

항목	귀농귀촌 지원			자체			충남 친환경농부 사업	
	금산 체류형 농업창업 교육센터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화천 현장귀농학교	밀양 김물생태학습관	홍성 젊은협업농장	곡성 향귀협동조합	아산 이룸드림 영농조합법인	논산 들녘영농조합
설립	2016	2013	2009	2013	2012	2012	2013	2017
청년관련 사업시기	2016	2017	2009	2013	2013	2018	2017	2017
교육생 수(2018)	5	5	5	0	5	4	4	12
관리자	파견 1명	총 4명. 교장, 사무국장, 교육팀장, 창년팀장	총 3명. 교장, 사무장, 교육팀장	총 3명. 관장 신부, 부관장 신부, 사무국장	책임자 1명	총 2명. 대표, 사무국장	책임자 1명	총 2명. 대표, 이사
취지	농업창업을 위한 체류형교육으로 지역정착유도	비슷한 창년들과 함께 정착에 대해 고민	지역에 귀농하는 친환경농 지립 창년 양성	청년층을 위한 농업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	고용은 어렵고 농업 교육으로 지역으로 독립시키자	물적, 인적 기반 없는 청년층 도와주자	청년층 육성에 지역의 고민 친환경농부사 업 계기	친환경농민조 직화와 친환경농부사 업 계기
교육기간	3월~2월	2월초~11월말	4월중순~11월	-	1월~12월	-	1월~12월	1월~12월
필요한	-임대비 지원	-농촌창년육성	-운영비 지원	특별히 없음	-다양한 청년층	-주거문제해결	-1,2,3년 코스	-현장농업연수

항목	귀농귀촌 지원			자체			충남 친환경농부 사업	
	금산 체류형 농업창업 교육센터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화천 현장귀농학교	밀양 김물생태학습관	홍성 젊은협업농장	곡성 향귀네협동조합	이산 이름드리 영농조합법인	논산 들녘영농조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은 농업기술센터 -지역밀착 멘토멘타제활용 -공동 형태는 책임불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주체와 목표의 다양성 -창조성 발휘 -창년층 개념 확대 -멘토멘티 -주거와 생계 -중간지원조직 -사업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력과 기술 관련 -노력이 우선 -기반없는 농촌 청년층 지원 -토지, 주거 -전반적인 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성 -진로탐색강화 -교육농 과정과 멘토 -면단위 설치 -면보급소활용 -지역조작연계 -하우스 농가 -중간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멘토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 지원 -자율적으로 시작된 사업 자체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 경험과정 -2,3개월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이해 -농사 맞는지 확인 과정 필요 -멘토를 스스로 찾게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간으로 인정 -지원금의 자율성 -거주지 -민간전문가 도입 -지역법인 역할 필요

(2) 세부 현황 내용

(2-1) 금산 체류형 농업창업교육센터

○ 면담자: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귀농교육팀장

○ 면담내용

◎ 운영 일반 현황

체류형 농업창업교육센터 개요

금산군에서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기초적인 영농 체험은 물론 교육 등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교육센터를 2015년 3월에 오픈하였다. 2012년부터 계획되어 도에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하면서 시작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 공모를 하고 있다. 총 사업비 60억원 가운데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20억원, 군비가 30억원이며 군에서는 추가 비용 20억원을 더 지원한 상태이다(김기홍,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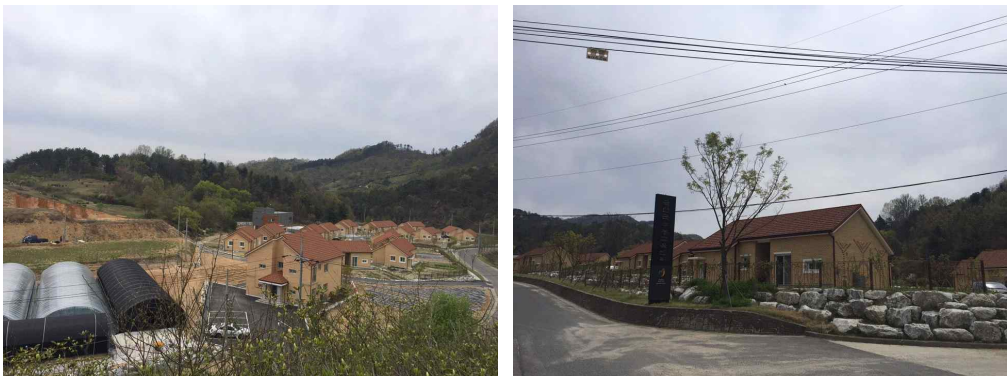
금산군 체류형 농업창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는 교육센터는 3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에 퇴교하게 된다. 현재 총 20세대 가운데 18세대가 군에 정착하였다. 두 세대만이 금산군 지역 정착 대신에 청양군과 계룡시로 정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교육센터는 전국에 8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정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에서는 교육센터 입교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부터 청년 우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입교가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교육센터 농장 내 운영 현황

현재 교육센터에는 가구별로 100평 정도의 텃밭이 마련되어 있으며 총 20여 개의 텃밭이 조성되어 있다. 이외는 별도로 자체교육농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시설하우스로 딸기 50평, 표고버섯 50평, 지황 등 약초와 블루베리 등 특수 작목에 대한 창업예정자들의 실습이 가능하다.

지원사업으로는 국도비에 의한 하우스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비에 의한 지원으로는 현재 귀농 관련 조례가 귀농인 1인당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쉽지 않은 형편이다. 교육 사업까지 포함해서도 1,000만 원이 넘지 않은 상태이다. 자치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는 센터 내 농장 관리는 교육생들과 함께 하고 있다. 실습농장의 묘 값만 900만 원 정도로 비료와 박스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수익은 일반 농가의 절반 정도이다.



〈그림 8〉 금산군 체류형 농업창업교육센터 전경

이외에 실천농장 사업으로는 GAP 실천농장 사업을 3~4명이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한 실천농장 사업(하우스)는 소득 분배 과정이 쉽지 않아 수익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되어 군 차원에서 권하고 있지는 않다.

금산군은 아토피 힐링 마을, 간디마을 등 다양한 귀농귀촌인 정착 마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다. 공주시의 경우 정착지원금이 300만 원 지원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귀농귀촌과 관련한 직접적인 보조사업은 없지만, 귀농귀촌인 마을이 형성되고 그 곳에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간접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교육 내용

금산군 교육 과정

청년층을 위한 교육으로는 크게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교육과 귀농귀촌대학, 그리고 교육센터 자체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월 2회에 걸쳐 시기에 맞는 텃밭 가꾸기가 실시되고 있다. 귀농귀촌대학에서는 연 20회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농업창업역량 강화교육이 10회(40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귀농교육센터에서는 창업교육과정으로 인삼, 약초, 갯잎, 딸기, 표고버섯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교육 과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센터 내 교육 사업은 최소화하고 교육센터 취지에 맞게 교육센터에 마련되어 있는 실습농장 및 자체 텃밭 가꾸기를 통해 농업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고자 하고 있다. 단계별로는 창업 실행 단계로서 농지와 하우스 등 영농기반 마련의 시간을 먼저 갖고, 다음 단계로서 작목에 따라 지역의 선도 농가를 멘토로서 소개하여 집중적으로 농작업을 배우고 있다.

선도농가 현장 실습 교육과의 연계

선도농가 현장 실습 교육(멘토멘티제)은 3~5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교육센터 입교자 가운데 4명이 선정되었다. 멘토멘티제에 대한 사업 효과가 매우 커서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전체 인원으로는 농촌진흥청 사업 6명, 도 사업 6명, 타 사업으로 4명이 실제 멘토멘티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교육 사업 가운데 지역 선도 농가에 의한 교육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군 차원에서 적어도 2~3개월은 멘토에 의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새롭게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정보 부족 문제로 땅을 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농지 구입은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농인이 원하는 농지 규모는 하우스 3평과 작업장 및 창고 시설이 마련되는 900평 정도의 규모다.

특히 딸기는 선도 농가 실습을 통해 교육을 받고 나면 새롭게 땅을 구하여 농사짓는 첫해부터 일정 정도의 소득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소득으로는 하우스 4동에 약 1억 2천만 원 가량 된다.

◎ 필요한 지원 제안

농장 형태

농장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초창기 사업으로 농림부에 의한 실천농장 사업과 청년농산업지원 사업 등이 있으나 실습농장 2,000여 평에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 공동 실습농장 형태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실천농장의 형태는 임대 농장 형태를 통해 임대비를 지원하고 기술 지원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며, 실제 필요한 영농 전반에 대한 과정은 지역에 밀착한 형태의 멘토멘티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거주지

거주지와 관련해서는 금산군에서는 귀농인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인데, 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지자체가 약 30억 규모의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로 올해 선정되어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사업 대상으로는 총 30세대 가운데 20세대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10세대는 농업에 관계없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영구 임대 형태이지만 귀농인의 경우 어느 정도 지역에서 정착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면 임대주택을 벗어나 땅을 사서 지역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 순창 귀농귀촌지원센터

○ 면담자: 순창 귀농귀촌지원센터 센터장 및 청년팀장

○ 면담내용

◎ 운영 현황

순창 귀농귀촌지원센터 개요

순창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귀농지원센터)는 2013년에 시작되었다. 전국적으로 귀농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순창군은 귀농운동본부에 위탁하게 되고 현재의 센터장이 운영을 맡아 내려오게 되었다. 귀농을 생각하고 있던 센터장은 연고가 없어 막막해 하다가 본부의 일년 과정인 소농학교를 거쳐 순창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으로 귀농하게 되었다. 1년 반쯤이 지나 청년팀장이 합류하게 되면서 비슷한 청년들과 함께 정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현재 귀농지원센터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장과 사무국장, 교육팀장과 청년팀장이 있다. 원래 작년까지는 세 명이었는데 청년팀장이 내려오면서 네 명이 되었다. 인건비는 군에서 세 명까지 지원되다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사업으로 청년팀장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9> 전국귀농운동본부 내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위계

자료: 2018년 청년귀농 장기교육사업 ‘순창 청년 로망 시험포’ 계획서

청년농장의 시작

전국의 다양한 협업농장 견학도 가보고 작년에 시범 운영도 하다가 올해 일 년 과정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청년들이 농촌에 대한 로망은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현해 볼 기회는 갖기 쉽지 않아 ‘순창청년농업시험포’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농정원 사업과 군 사업을 매칭하여 9개월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귀농지원센터에서는 작년까지 단기 교육과 중기 교육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장기 교육은 없어 필요성을 느끼던 무렵, 중기 합숙 교육으로 4~6주간 교육 가운데 공고를 통해 5명을 선발하였다. 지원자가 10여 명 정도였지만 숙소 문제 등도 발생하여 적은 숫자로 시작했다.

현재는 농정원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농정원 장기교육 사업의 목적은 ‘창업농’을 육성하는 것이어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센터 입장에서는 농촌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을 지원하고 싶은데 이런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농촌에서 1년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동기 부여가 가능할 텐데 그러한 선택지가 다양하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느끼고 있다.

청년 현황

현재 청년 5명 가운데 20대가 두 명, 30대가 세 명이고, 지역은 서울, 대전, 대구, 인천으로 다양하다. 작년부터 실시한 중기 교육 과정에서 청년들이 연결되었다. 막상 교육은 끝이 났지만 지역에 정착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막막했기 때문이다. 우선 1박 2일 단기 교육을 거쳐 장기 교육 과정을 선택하게 했다. 센터 입장에서도 어떤 청년이 오게 될지 부담이 크기도 했다. 2월 초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의 과정으로 이제 거의 마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이 전업농까지는 자신이 없는 상태로 지역에서 취업하는 등 반농반X를 희망하고 있다. 큰 돈을 벌 목적이 아니면 일자리는 있다.

농장 현황

농장은 센터에서 25~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교육팀장까지 포함해서 6명이서 농사를 지었다. 하우스 기술이나 관리 요령이 없어서 작물 멘토가 되어 주는 지역 분들의 도움을 얻었다. 노지 5천 평을 갖고 있는데 거리가 먼데다 사람 손으로 어렵고 기계가 들어가야

해서 밀을 심는 것에 활용을 잘 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은 콩을 심었는데 콩 농사가 잘 되지는 않아서 방치되고 있다. 같이 식사하고 장보고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팀장의 경우 텃밭 수준의 농사만 경험해서 지역 멘토의 도움을 받고 있는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최종 판단은 교육생들이 하고 있어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다. 농사는 유기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무농약 인증까지 받은 상태다. 주위에 토종 씨앗을 하는 분이 도움을 주었다. 센터장을 제외하고 네 명의 멘토가 존재한다. 센터장은 기계에 관심이 많아 기계나 하우스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청년 실천농장에서 생산된 수익은 청년에게 배분되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

이곳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은 현재까지 100가구 200명 정도 된다. 교육 과정은 약 500명 정도가 거쳐 갔다. 지역 내 네트워크 활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은 모임도 활발하다. 순창은 대부분 초기 귀농인들이다. 연대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홍성군 같이 자리를 잘 잡아서 도움을 주는 멘토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다. 아직까지는 다양하고 좋은 사례나 모델이 풍부하지는 않아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것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많아서 그런 부분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와 모여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는 편이다. 교육만 담당하고 있어 수익 사업은 없는 편이다.

◎ 교육 내용

교육의 원칙

‘로망을 실현해보자’는 원칙하에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원래는 장기 교육은 다양한 교육을 엑기스식으로 담은 형태로 50대 이하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젊은 층의 참여가 많았다. 센터에는 단기 교육과 중기 교육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교육이 없어 고민을 해오다 3개월 과정을 준비를 하다가 올해 농정원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다. 아무런 자본이나 연고가 없는 청년층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장

기 교육이라고 판단했다. 단기 교육은 1박 2일 형태로 농촌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는 정도의 과정이고, 좀 더 심화한 중기 과정을 거쳐 1년 정도의 교육이라기보다는 터전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교육 체계가 필요했다. 청년들이 지낼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최소한의 준비를 거쳐 다음은 센터 차원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귀농운동본부가 가지는 생태에 맞춰 자립하는 삶이라는 가치에 맞추어 좋은 사람들이 함께 지역에 살며 건강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거점이 되자는 목표를 청년층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 것이었다.

활발한 커뮤니티나 자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이나믹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청년들이 잘 정착해서 다시 다른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에 건강한 귀농 등 생태 가치 교육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만들어진 센터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데 다 커리큘럼 안에 담지는 않았다.

◎ 필요한 지원 제안

농촌청년 포함한 청년층 개념의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에만 초점을 두는 실천농장은 어렵다고 본다. 청년 교육을 통해서 바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또 이러한 교육 시스템으로 청년 농업인이 육성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청년을 모으는 일이 쉽지가 않고 다음은 제대로 운영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운영되어도 성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다. 기본 소득이 있다고 해도 농업인으로서 뿌리를 내리겠다고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청년층에게 기대해야 할 것은 청년 농업인이 아니라 농촌에 다른 활력으로 작동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 지역 정책의 관점에 방점을 찍고 일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지역을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막연하더라도 이 지역에 남고 싶다는 매력 점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자리 잡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인을 전제로 한다면 농촌에서의 청년층은 20~30대 싱글이 아니라 30대 중반 이후부터 40대 초반까지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뿌리내릴 수 있는 층이 농업인들로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설정 자체가 경험 없는 청년층에 맞춰져 있어 전혀 맞지 않는 프레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농촌의 청년층을 순창에서도 49세 이하로 두려고 하고 있다. 청년농업에 농촌 개념이 포함된다면 실천농장의 취지를 살리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농장으로 설정하면 농사에만 한정해서 연결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촌청년 육성 프로젝트 같은 이름이 좋을 것 같다.

추진 주체와 목표

농적 가치를 알려주면서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지역마다 접근 방법은 다를 수 있다. 누가 어떻게 교육할지에 따라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경험 가능하면 좋을 것 같다. 농사는 창조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작은 평수라도 짜여진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해 나가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각자의 공간에서 땅을 나누고 큰일은 공유하는 행태가 된다면 더욱 재미있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협업농장의 구현은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것이다. 교육용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자기 개발이지만 외롭지 않고 개인의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지금 같은 사업의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경험하고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조절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창조성이 발휘되면 지원은 하되 어떤 주체가 운영하고 어떤 목표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

멘토멘티제의 확대

아쉬운 사업 중 하나로 농산업 인턴제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악용하게 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잘 활용한다면 농가에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에서 관리 의지가 부족한 탓이 아니었나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 멘토멘티제 역시도 행정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 단체에 맡겨서 관리한다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사업량도 적어 아쉽다. 농사 전문가에게 농사를 배워보는 좋은 기회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큰 영농조합이 아니라 중소 규모의 농가에게서 농가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더욱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순서로는 단기, 중기, 장기 교육 과정이 있고, 현재의 멘토멘티제는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 교육 후에 조금 더 긴 시간의 멘토멘티제로 넘어가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과정을 실천농장의 역할로 두고 그 다음에 독립할지는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지나 주거 문제를 지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주거와 최소한의 생계 문제

기본적으로는 주거와 최소한의 생계만 해결된다면 그 안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다섯 명만 데리고 농업교육만 하라는 것이 너무 아쉽다. 농업기술센터에도 1년 내내 교육이 있고 정보 교육도 많다. 따로 교육 목적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예산이라면 안정적인 주거나 생활유지비 지원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낫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주는 방식의 지원이 덧붙여진다면 실천농장 프로그램이 더욱 성공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창업농 지원금은 이러한 초보인 사람에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농장의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차원에서 몫을 떼어놓고 교육비나 일 년간의 생활비가 지원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기관 관리자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민들보다는 청년층을 이해하는 젊은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실천농장은 1년 정도 지내보며 기본적인 농사를 배우고 그 가운데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 스스로 운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실 장점이 매우 큰 제도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희망하는 작물을 키우거나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농장 제도는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많은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교육 프로그램이 문제가 많지만 관련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사업 자율성의 확보

현재 장기 교육 프로그램은 강사비나 재료비가 세팅되어 있어 유연성이 없는데 일정 부분이라도 자율제량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면 다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업계획을 통해 공공적인 활동은 같이 해 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예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산하는 방식의 행정적인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방식이 고려되면 좋을 것이다. 그래도 올해는 재미있었다. 내년에는 좀 더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이다.

(2-3) 강원 화천현장귀농학교

○ 면담자: 강원 화천현장귀농학교 교장

○ 면담내용

◎ 운영 현황

화천현장귀농학교의 시작

화천현장귀농학교(이하 귀농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귀농을 위해 3~4년간 전국을 다녔다. 그러다가 2009년에 화천군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계획 마련을 위해 귀농학교를 제안하면서 화천으로 오게 되었다. 귀농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농촌 생활이나 기술 등에 필요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 형태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군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귀농학교 설립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 1년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9년이 시간이 흘렀다. 숙소는 마을 노인정에서, 수업과 교육은 면사무소 2층을 활용했다. 2기 때가 되어서야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인 9천만 원을 마련했다. 본인의 땅 일부를 활용하면서 기숙사를 짓게 되었다. 하지만 교육 자금은 없어서 계속 마을 회관을 이용해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현재의 귀농학교로 오게 된 것이 2006년의 일이다. 본래 폐교였는데 교육청 재산을 화천군이 임차를 해서 다른 단체에 빌려주고 있던 차에 계약 기간이 끝나 귀농학교로 쓰기 시작했다.

귀농학교의 목적

귀농학교의 목적은 장기과정을 통해 지역에 귀농하는 청년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핵심은 친환경농업으로 자립할 수 있는 농업인을 기르는 것에 있다. 연령은 55세까지로 제한하였다. 귀농운동본부와 청년층과 관련하여 100일 귀농학교, 청년학교 등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청년이 갖는 한계 때문에 청년들만 따로 교육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귀농귀촌 장기 사업을 하고 있다. 타 기관과는 다르게 철저히 교육을 목표로 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을 것이다.

화천귀농학교는 홍성군의 풀무학교 전공부와 지금은 없어진 실상사 귀농학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했다. 규모나 예산 측면에서 풀무학교 전공부만큼 안정적이지는 못했지만 9~10년 가능했고 현장에서 이렇게 버텨온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크다. 이곳을 벤치마킹한 곳이 순창 귀농귀촌지원센터이다. 순창의 경우는 여건이 훨씬 나은 상태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해 현재 급여를 받은 인원만 4명이다. 귀농귀촌 지원 센터 예산으로 학교 예산 2천5백만 원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어려움이 있다.



〈그림 10〉 화천현장귀농학교 전경

교육 과정을 거치면 화천 지역에 남는 청년들도 있고 양구나 홍천, 주변 지역에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 또 전국으로 다시 나가는 친구들도 있다. 어딜 가든지 크게 상관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역에 남고자 하는 청년에게는 1차적으로 지역의 생산자 단체에 가입을 시켜주고 있다. 일반 관행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출하가 쉬운 편인데 반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출하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학교에서 책임을 져주려고 하고 있다. 강원유기농에 출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사실 강원유기농 농가들이 멘토가 되어 다양한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멘티로서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늘어나면 준회원이 되었다가 2년 정도 후에 정회원이 되어 간다. 교육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역시 사람이지만 반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청년층 및 운영 현황

현재 학교에는 교장 외에 사무장과 교육팀장이 있다. 급여를 받는 사무장의 경우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교육팀장은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 교육생은 현재 9기로 정규과정은 10명 전후이다. 운영비는 처음 4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당시에는 운영비는 6천만 원 정도였다가 사업이 끝나고 재작년부터는 2천 5백만 원으로 줄었다. 현재는 학생들이 자부담 200만을 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아 귀농귀촌 단기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교육으로 시작한 귀농학교는 보통 7~12명 정도의 인원인데 올해는 5명이었다. 2030세대가 4명이고 장기과정이 1명이다. 8~9개월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은 4~5명 정도이다. 지역 인적 자원으로는 강사의 대부분이 지역 이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다. 졸업생들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멘토가 된다. 장기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자부담이 200만 원 가량 되는데 절반은 지원금으로 해결이 되었다.

프로그램은 인원수에도 좌우되어 매년 다르다. 올해는 처음 한 달 동안은 귀농철학 등 인문학 공부를 위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수료하면 작목을 선정하게끔 하였다. 학교가 속해있는 강원유기농영농조합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 단체 농민을 멘토로 선정하여 수시로 만남을 갖게 하고 있다. 한사람 당 하우스 한 동 원칙으로 같이 먹는 농사를 지향하고 있다. 귀농학교에서 함께 먹는 먹거리는 노지에서 재배한 것으로 하고 있다.

원래 논도 있었지만 인삼밭으로 빌리는 농가들이 시세의 2배 정도의 임대비를 5~6년치 한꺼번에 주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임차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는 논 농사 지을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임업실습장도 있는데 귀농학교와 마을이 함께 5만 평을 같이 했었다. 지금은 학교 쪽에서 산채 농사를 짓고 있다. 현재의 교육생 인원으로는 임업실습장까지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농지와 숙소 문제

농지나 숙소 문제는 청년들 본인이 구하기가 쉽지 않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학교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주기도 한다. 올해 청년들 가운데는 한 명은 부부가 함께 농촌에 남아 있기로 했고, 한 명은 농수산대학 진학을, 또 한 명은 화천에 남기로 해서 학교 사무장이나 학교 농장 일부를 임대해서 지역에 남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 한 명은 충남

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충남의 지인을 소개시켜준 상태이다.

지금까지 졸업한 교육생은 1기가 6명으로 이 가운데 화천에 한 명이 남았고, 홍천 한 명, 청도에 한 명이 정착했다. 2기는 11명 가운데 화천에 남은 사람은 두 명 정도다. 3기는 10여 명 되는데 화천에 한 명이 남아있다. 교육생 가운데 80%는 귀농을 하고 있고 2~3명 정도가 화천에 남아 있다. 5기는 4명이나 화천에 남아 있다.

지역과의 관계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처음에는 외지인에 대한 군수의 인식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가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고 지역 역시도 학교 출신 교육생들이 남아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마을 주민과 함께 진행하면서 마을 실적으로 쌓이게 되자 반응이 달라졌다. 마을 축제도 함께 하고 있고 학교에서 동창회도 기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14년 째 귀농해 살고 있지만 아직도 화천군에는 귀농인들만 모여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귀농협의회 같은 조직은 없다. 화천군 생태귀농조합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법인조합이 있긴 하지만 모임을 하지 않으니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저 자연스러운 교류를 가지는 정도이다.

◎ 교육 내용

교육 과정

올해는 청년창업농 장기교육이 늦게 시작하게 되어 보통은 3월 중순부터인데 모집을 완료하고 시작한 것이 4월 중순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작년에는 오리엔테이션 한 달 과정 후에 작목을 선정하고 시작하면 6월 중순에는 작목을 1차 출하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는 7월 20일 전후에 첫 수확이 이루어져서 추석 전에 마무리 되었다. 10월 하반기부터 11월 중순까지는 국내 견학을 하게 된다. 보통은 매년 학생들이 일주일씩 다른 지역 농장에서 지내고 오게 된다. 올해는 농사로 바빠 견학만 계획하고 있다. 제천과 상주, 성주, 순창을 예정하고 있다. 11월 후반부에는 해외견학을 계획하고 있다. 일년 농사지은 소득으로 가게 된다. 올해는 한 청년 당 400만 원을 벌었는데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재작년부터 시작되었다.

장기교육 과정 외에 생활교육과정이 있으며 화천군 귀농자들 대상으로 하는 토양 강의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지고 있다. 그 사이에 작은 집짓기, 수리 등을 하기도 하지만 올해는 농사에 집중하기로 해서 수업이 없었다. 11월에는 노지에서 농사지는 배추로 김장을 하고 해외 견학을 마치면 일 년간의 수업 일정이 끝난다. 12월 말에는 난방비 때문에 기숙사를 폐쇄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다시 시작하게 된다. 장기 교육생들은 기존의 기숙사에서, 단기 교육생들은 귀농학교가 있는 곳에 있는 교실 4개를 숙소로 쓰고 있다. 그림과 같이 학교 규칙과 생활수칙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육생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화천 현장귀농학교 규칙

1. 교육생 자치회

우리 화천 현장귀농학교는 교육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생들은 자간과 함께 하는 생애 귀농, 귀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내일을 보장해 주는 가장 작은 실천단을 형성하여 전 과정 참여하는 자치회로 교육과 생활에 임한다. 교육생은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회장, 부회장, 생활을 진흥하며, 자치회를 구성한다. 자치회는 교육, 생활 등 전반 사항에 대하여 교육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에 전달 할 수 있으며, 교육생들의 단합과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

2. 교육생 준수사항

1) 출결관련규칙

- ① 교육생은 아침 수업시간부터 저녁 일과 마감까지 성실히 교육에 참여한다.
- ② 부득이한 경우 결석이나 조퇴할 사항이 생길 경우 학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③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별로 결석 2일 조퇴 3회 이상 초과 할 수 없다.
 - 병원에서 진료목적으로 조퇴나缺勤할 경우 진료증을 첨부해야 한다.
 - 교육도중 발생한 부상치료를 인한 결석, 병원치료에 필요한 교육 불참은 결석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 ④ 개인사항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할 경우는 최소 3일 전에 학교에 알려야 한다.
- ⑤ 각항의 위반 시에는 징계를 수 있다.

2) 생활관련규칙

- ① 교육생이 생활하는 공간은 시정, 사후 항상 청결히 청소, 정리 하여야 하며, 전동이나 전열기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한다. (가습기, 교육장, 실습장, 화장실 및 세면장, 에어컨, 히열 등)
- ② 교육시간 중 담당교수 및 책임자의 허가 없이 교육장을 이탈할 수 없다.
- ③ 매끼 식사는 학생들이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여 교육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④ 기숙사, 식당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 ⑤ 교내에서의 학생들간의 음주행위는 절대 금한다.
- ⑥ 기숙사는 공동생활 공간이므로 여간의 음주는 11시로 제한하며, 다음날 아침 수업에

기숙사 생활수칙

우리 화천현장귀농학교 기숙사는 2011년 2기 수료생들의 꿈과 정성으로 완공한 건물입니다. 경량목구조 방식으로 기초부터 마감까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벽체는 2중 석고보드에 1. 황토페인트 마감, 2. 백토페인트 마감, 3. 나무 합판마감 으로 각 방마다 특색을 살렸습니다. 벽의 난방은 스테인레스 봉에 열을 전도시켜 난방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전기 난방에 비해 전파에 비교적 안전한 방식입니다. 내 짐을 쓰는 것처럼 소중히 사용하고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 절전 해 주시고, 방을 비울 때는 항상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 방을 드나들 때 문닫힘 확인은 필수입니다.(귀, 들짐승 주의)
- 난방은 지정된 온도 이상 올라지 마시고, 나를 때는 반드시 꺼주세요.
- 욕실을 사용한 다음 반드시 청소를 해 주셔서 다음 사람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식원나 물을 사용 하실 때 항상 꼭 필요한 만큼만 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제는 항상 조금만, 친환경 미생물 활용, 생태적 대체세제 활용
- 항상 방과 기숙사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 전기에 절대 휴지나 어물질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일 납니다.
- 휴이나 오물은 일정 배탈 우물에서 씻고 실내 욕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에서는 금연이며, 학생들끼리 기숙사내 음주는 절대 금합니다.

<그림 11> 화천 현장귀농학교의 규칙 및 기숙사 생활수칙

이런 프로그램은 매년 바뀌게 된다. 작목에 따라 일정도 달라진다. 매주 주간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짜는 방식이다. 개별 농사를 지을 것인지 공동으로 할 것인지 하는 큰 틀은 교육생 인원 등을 감안해서 교장이 결정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미리 정해놓기가 어렵다.

화천군 귀농인 대상 교육도 있는데 인원은 때마다 다르다. 군으로 귀농귀촌한 모든 사람들이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고 강의당 만 원 정도 강의를 받아 저녁밥값으로 해결하고 있다. 작년에는 3박 4일 동안 난로와 용접 교육을 실시했는데 30여 명이 참석했다.

◎ 필요한 지원 제안

운영비 지원

귀농학교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까지 겸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지원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부담하기를 바라지만 지자체도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작년 같은 경우 농정원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귀농귀촌지원센터장 교육이 가능했다.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기도 했으나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이든 귀농학교든 귀농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할 대상이 운영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생산력과 기술 문제

사실 여러 곳에서 판로만 해결된다면 청년 농업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생산력과 기술이 수반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생각이다. 안정적인 판로가 가능하니 농민이 되어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정도로 생산이 가능하게 될 청년층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청년층 가운데는 정식적인 농민이 되려는 사람들은 적고 재미있으니까 해보려는 생각을 가진 부류가 더 많은 것 같다. 꾸준하게 교육을 시킬 멘토도 필요하고, 또 꾸준히 배울 청년도 필요하다. 그 다음이 농지와 숙소, 판로, 예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농촌 청년 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천농장을 통해 농업인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목적과 그렇지 않고 농촌에 남아 농사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청년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관 자체를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개념이 분리되면 좋을 것 같다. 현재 정부는 농업인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곡성과 같이 지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돕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사실 정부의 지원은 이런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하고 있는 곳을 찾아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초보자 지원

청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하지만 나이 제한이 딱히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농업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다. 청년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좀 더 현실화 되고 세밀화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아무런 기반이 없는 청년에게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창업농 지원이 승계농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초보자들을 위한 지원 중심이어야 할 것이다.

토지 및 주거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도 임업후계자처럼 1년 거치 19년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황으로 이율도 1.5%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환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농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만 해결되어도 컨테이너에서라도 지낼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마을회관 등을 임시 거처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지역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전반적인 틀 제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수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게 되어 차라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틀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청년층을 양성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장기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자부담 30% 원칙은 청년층을 양성하는 기관이나 청년층에나 모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큰 틀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교육 기관의 인건비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미 틀에 짜여진 공모 형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지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너무 딱 짜인 커리큘럼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4)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 감물생태학습관

○ 면담자: 밀양 감물생태학습관 사무장

○ 면담내용

◎ 운영 현황

밀양 감물생태학습관의 시작

밀양 감물생태학습관(이하 학습관)은 2013년에 설립되어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농업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밀양의 현안인 송전탑 문제 때문에 핵심 멤버가 나가게 되면서 초창기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는 것에는 차질이 생겨 초기에는 운영을 했던 농사실습제도나 농사학교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학습관은 관장 신부님과 부관장 신부님, 초창기 멤버인 귀농 3가구, 사무국장 부부가 함께하고 있다. 이외에 주방과 농사를 담당 2명이 더 있다. 농번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사무국장은 귀농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업을 듣기 위해 2017년 1월 학습관으로 내려와 현재 2년차를 맞고 있다. 처가가 밀양이어서 자주 들르기는 했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임대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임대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땅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이주를 결정했다. 200~300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작년에는 땅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땅을 마련했으며 내년에 더 늘려갈 계획이다.



〈그림 12〉 밀양 감물생태학습관 전경

현황

유기농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현재 마을에서는 유일하게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주위 농가들은 관행 농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주변 땅을 조금씩 임대로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멘토는 신부님으로 농사 지도까지 맡아 오다가 지금은 유기농업과 관련해서 네 분 정도가 도와주고 있다. 중고 트랙터도 사용하고 있어서 초창기 농사지를 때보다는 여건이 나은 편이다. 신부님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은 못하시고 여러 조언들을 해주고 계신다.

자급자족이 목적으로 농사로 수익을 내야 한다는 부담은 없다. 실제로 2017년에는 농사를 통한 수익이 1,100~1,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캠프는 여름 방학 한 시즌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소에는 없기 때문에 1년치 농사를 캠프에서 식사 제공으로 쓰게 된다.

학습관은 이제 5년이 되었는데 젊은 층 졸업생의 숫자는 적다. 아직 이곳에서 교육을 마친 교육생 가운데 지역에 남은 청년은 없다. 청도나 주변 다른 지역에서 이미 귀농귀촌한 사람들 가운데 수업을 받으러 오는 은퇴자들 정도이다. 직원은 월급 1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청년층에게는 숙식과 개인 기본소득 50만 원 제공하고 있는데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상태다. 개인 신부님이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숙식은 학습관에서 책임진다.

지역과의 관계

학습관은 본래 지역민들과 관계를 맺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농촌의 협업이나 공동체 문화가 예전 같지 않게 함께 해야 할 이 유가 많지 않고 연령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과의 관계가 쉽지는 않지만 지역 이장님과는 친하게 지내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세 개 마을 60~80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외부의 젊은 층의 이주는 아직 많이 없는 상태여서 땅을 구하는 데는 유리하기도 하다.

여러 조건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지역에 젊은 층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 지역 정착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젊은 층이 조금씩 늘어나서 분위기가 조성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있다. 조금하게 생각하지 않고 긴 시야에서 지인들을 통해 홍보하고 교류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지

역정착까지 생각하시니까 더 그렇죠 결국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를 보러 오는 거니까. (학습관 사무국장 면담)

◎ 교육 내용

교육 과정

프로그램은 두 달 정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실습을 2번 하고 있다. 부산의 가톨릭 센터에서는 이론 수업만 하고 실습은 8주 과정 가운데 2주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부산 가톨릭 센터는 부산 교구에서 지원을 해줬고 3~5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후에는 이곳 학습관 신부님이 중심이 되어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가 이루어지는데 수익 사업이 되고 있다. 수익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비 가운데 경비 충당은 가능하다.

가톨릭농민회를 통해 지인을 소개받아 배우는 경우도 있다. 가톨릭농민회는 교구로 나누어 지는데 밀양군에 있는 부산교구는 8~9농가(15~16명) 정도이다. 부산 가톨릭 센터의 귀농학교는 약 20~30명 인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젊은 층보다는 은퇴자를 위한 귀농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부산귀농학교에서는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 40~50대가 많고 20~30대는 2~3명 정도에 불과하다.

농업 인프라

농작물이나 농기계 등 농업 관련 인프라는 잘 정비되어 있으며, 농지도 임대할 수 있다. 마을 자체가 다랑이 논이 많은 산간 지역으로 기계농이나 상업농이 될 수 없는 소농 중심 지역이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소농에서부터 접근하려는 청년층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청년층이 직접 이곳에서 함께하면서 기존의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 가고자 하고 있다.

2013년에는 두 달 가운데 매주 1박 2일 실습이 이루어졌다. 참가 비용은 비싼 편이었으나 현재는 무료이다. 참가 인원이 줄면서 참가 비용을 없앴다. 교사의 역할 등은 사실 특별히 없고 현재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 필요한 지원 제안

특별히 필요한 지원 사항은 없다.

(2-5) 충청남도 홍성군 젊은협업농장

○ 면담자: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 면담내용

◎ 운영 현황

젊은협업농장의 시작

젊은협업농장은 2011년에 계획하여 2012년 3명으로 하우스 한 동으로 시작했다. 그러다가 배우겠다고 들어온 청년이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청년 관련 지원이나 사업 같은 것이 없던 시절로 이들을 모두 고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농업 교육을 시켜 독립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실천농장 형태가 시작되었다. 2013년에는 3명이던 멤버가 10명까지 늘어났다. 그때부터 지금의 농사짓는 방식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 5명의 청년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장애인이다. 1년 더 있다 독립하겠다는 청년을 제외하면 보통은 1년 후 독립해 나간다. 청년의 수는 매년 다른데 숫자가 적어진다고 농장이 운영되는 데는 큰 문제는 아니다. 농사가 바쁜 시기에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도와주기가 쉽지 못하게 될 수는 있다. 수입과 지출이 1억 4천만 원 규모에서 거의 동일하다. 최근 청년층 사업이 많이 늘어나 원래 9~11월에는 다음 해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문의가 들어오는데 현재는 지금까지에 비하면 찾는 사람들이 없는 편이다. 현재 2명이 독립하게 되는데 신규는 없다. 하지만 나눠가져야 하는 청년의 수가 줄어들면 반대로 수익은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만이라고도 할 수는 없다.

◎ 교육 내용

교육 과정

현재 상상캠프 2박 3일, 서울 2주일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초기에는 농업과 관련한 이론 과목이 하나였다. 여름철에 낮 시간에 공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지역의 선생님께 일본 농업 관련 책을 두 권 정도 번역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당시만 해도 청년층이라고 해도 30~40대가 위주였다. 이들은 6~8개월 정도 배우면 독립해 농장을 떠났다. 하지만 2015년 20대 초반의 청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게 되었다. 현재와 같이 수업이 많이 편성된 것은 2016년부터다. 그전까지는 일마치고 난 후에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5시부터 강좌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림 13〉 홍성군 젊은협업농장 전경

세대별 다른 교육의 필요성

20대와 30대는 성향이 달랐다. 30대는 비교적 빨리 독립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졌다. 그래서 협업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8개월 정도 빨리 배우고 독립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론적인 부분이 위주였다면 20대는 더 많은 교육이 필요했다. 보통은 2년 내에 자신의 진로를 찾아 독립하게 된다. 농사짓는 경우도 있고 지역의 다른 활동으로 나가기도 한다. 학교급

식센터에서 일하기도 하는 등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20대에게는 다양한 공부를 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나면 방통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석사 과정에 진학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진로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로를 탐색한 청년들은 나중이라도 농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혹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농촌 지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다른 성향 때문에 같은 청년층이어도 20대와 30대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 연매출 3천만 원 이상의 농가는 전체 농가 가운데 10% 정도이다. 보통은 1천 5백만 원 선이다. 지역에서 마을 간사 등 다른 일로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곡은 농지 값이 평당 6만 원도 매우 싼 편임에도 불구하고 기반 없는 청년층이 농지를 사기란 쉽지 않다.

◎ 필요한 지원 제안

다양한 청년층 육성

농업인이 육성되지 않더라도 농업인을 육성하다 보면 농촌 활동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는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는 농사짓는 청년보다는 농사를 안 짓는 청년이 더 많다. 하지만 농촌에는 농사 말고도 필요한 분야가 많다. 지역 단체의 경우, 물류, 회계 이런 영역에 청년을 필요로 한다.

실천농장은 농적 진로 탐색의 기관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교육을 통해 청년층에게 이해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로 교육농 과정을 통해 농촌 사회를 배우게 하고 다음 단계로 선도 농가라는 멘토를 접하게 하여 전문적인 농사 기술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촌과 농업으로 들어오는 진입통로로서 교육 농장을 자리 잡게 할 필요가 있다.

면 단위의 설치

실천농장은 면 단위에서 설치될 필요가 있다. 교육 시설로는 농업기술센터가 면 단위로 소유하고 보급소를 활용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을 기술센터

교육과정으로 가져오되 단 교육 자체는 면 단위 보급소 혹은 마을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을 단위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공간도, 인력도 현장 단위로 내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에서는 이장이 중심이 되어 지역 농가들과 협의하여 기존의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의 일부를 실천농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청년들을 케어해주는 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실천농장은 우선은 꾸준히 일정한 소득이 확보 가능한 시설재배에서 시작하여 상추 등 작물을 배워나가도록 하며 이후 논농사까지 확대되어 갈 수 있으면 더 좋다. 면 단위에서는 이러한 이장을 교육하고, 군 단위에서는 실천농장의 실무자 교육이나 코디 교육을 해나가면서 각 지역의 실천농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된다.

중간지역조직과 연계

여기에 권역 마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활용하여 현장 기반 동아리 활동 등을 해나가도 좋다. 현재 충남의 군 단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이나 마을만들기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기능과 연계하게 된다면 마을별로 귀농의 집이나 폐가 등이 연결 가능하게 되어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농민과 청년층이 함께하는 교육 네트워크는 저절로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진입한 청년층 역시 면사무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새마을 지도자와 같은 농촌의 시스템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씩 농촌 생활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면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청년들 가운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계약직으로 고용하면서 마을 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해가면 청년층 일자리 확보와 인구 증감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장 기반의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농업기술센터는 중앙의 농업 기술을 현장에 잘 전달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 단위에서 귀농귀촌센터를 마련하고, 마을마다 실천농장을 만들고, 면장과 이장이 결합하여 권역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가운데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들을 교육하여 지역의 인재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에 청년들이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이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농지를 알아봐 주고 면장이 사업을 연결해서 하우스를 짓게 하는 한편, 농사가 맞지 않는 청년들은 면 단위 활동으로 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농촌의 사회경제

를 형성하게 할 것이다.

실천농장의 초창기 교육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해야 한다. 실천농장 차원에서 가능하게 된다면 인큐베이팅 시키는 과정으로 1~2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농업으로 단계적으로 집입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충남은 귀농 교육하는 사회적 농장을 연별로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청년 가운데 장애인을 한명씩 지원하게 되면 장애인 청년들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

현재 농업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받아 수행할 지역 단위의 조직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마을 단위에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룹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룹은 별도의 사회적 활동과 조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지역 단위의 조직화 사업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조직에 사업을 맡기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의 경우 농사법인 조직의 단계까지 이르는 했으나 이제는 법인 단계가 아닌 지역의 농업 기술센터를 포함하는 관련된 모든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6) 전라남도 곡성군 향꾸네협동조합

○ 면담자: 향꾸네협동조합 사무국장

○ 면담내용

◎ 운영 현황

향꾸네협동조합의 시작

향꾸네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 법이 마련되면서 협동조합 형태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6월에 등기를 마쳤다.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엄두에 두고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지속 가능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자본과 산업에서 농업은 희생되어 왔으며 먹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도외시 되어 온 분위기에 맞서는 협동조합을 지향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정관에는 지속가능한 마을, 조합원이 상부상조하는 마을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을 중심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총 30여 명인데 인근 지역 회원이 20명이다. 30대는 7명 있다. 향꾸네협동조합이 있는 마을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그야말로 마을 소멸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 곳이다. 과일과 특수작목 등 소득농사는 일절 없으며 소농에 의한 마을이지만 이도 소실되어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난로를 중심으로 하는 적정기술로 시작되어 현재는 공방과 마을 카페가 마련되어 있다. 마을 카페 가운데 절반은 도서관이다. 공방과 마을 카페는 지역 귀농귀촌인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2012년에 귀농한 사무장은 애초에는 지인의 소개로 충청북도 영동군에 귀농했는데 지역의 주 작목이 포도와 꽃감, 벼농사로 재배 작목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경험하고 다양한 농업이 가능한 곡성으로 다시 귀농하게 되었다. 사전에 귀농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았고 소농학교 프로그램에서 논, 밭농사 교육을 경험했다. 곡성에는 이미 기존에 유명한 분이 있어서 많이 들어온 곳이었다. 현재 논이 6마지기에 밭이 500평 정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노지에서는 감자, 고추, 깨, 양파 등을 재배하고 있다.

청년쉐어하우스 ‘꿈엔들’의 시작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게 된 계기는 최근 이 마을에서도 청년 귀농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에서의 숙박된 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에 내려와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물적 자본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상태의 기반 없는 청년층을 도와주자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청년층의 가장 큰 문제는 거주지라고 생각하여 청년쉐어하우스인 ‘꿈엔들’을 마련하였다. 비용의 절반은 협동조합에서,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조성되었다. 지역 어른이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였고 5월부터 오픈하였다. 현재 4명이 입주해 있는데, 2명은 부부로 내년에 집을 터를 알선해 주었고 구매까지 마쳤다. 1명은 농지와 빈집을 알아보고 있다. 마지막 1명은 좀 더 이곳에서 지내보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인근 귀농 청년과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14〉 향꾸네협동조합(좌)과 청년쉐어하우스 꿈엔들(우) 전경

협동조합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다. 지역의 덕산마을에는 6가구가, 회화마을에는 12가구가 살고 있다. 초록마을이 가장 큰 마을로 20가구가 살고 있다. 협동조합이 위치한 괴정마을 주민과는 매우 관계가 좋아 농민에게서 트랙터를 빌리기도 한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귀농귀촌인이 직접 참여해오고 있다. 몇 년 전에는 하림 계열의 오리농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쳤고, 채석장 반대 운동, 지역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함께 힘을 실어왔다.

자급자족과 청년층의 다양한 기회

귀농귀촌인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자급자족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먹거리는 스스로 생산하고 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반농반X적인 개념이 많은 편인 것 같다. 현재 지역에는 사회복지사나 작가 등이 있어 기존의 재능들을 활용해 가면서 생활해 가고 있다. 또 청년들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집짓기나 수리 등을 통해 용돈벌이를 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군 차원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근로사업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등 생활지원대상자에게 주택 개량 사업 등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보다는 청년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협동조합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주택 관련 수리 교육 등을 실시해오면서 군에 청년수리공을 지역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협동조합 측에서 청년을 1년간 고용한다면 90% 보조사업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다시 말해 고용하는 쪽에서 10%를

자부담하라는 얘기다. 기존의 사업들이 일자리를 ‘창출’ 해내는 성과 지향적 사업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고용 성과 목적이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의 삶을 큰 그림으로 그려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착을 도와주는, 기댈 언덕이 필요하다.

◎ 교육 내용

자율적 교육 과정

청년쉐어하우스 ‘꿈엔들’은 월세는 4만 원이고 전기와 난방비, 건물 유지 보수비는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 농사지을 논과 밭도 임대해 주고 있다. 농사 외에 고효율 난로와 화덕 등 에너지 적정 기술도 함께 교육하고 있으며 용접과 목공 기술도 가르쳐 주고 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일방적이지 않은 자율적인 교육을 큰 그림으로 잡고 있다. 시골에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자기 농사가 가능한, 손수 다양한 자재들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독립하기 전 1~2년 전에 이러한 농장을 경험함으로써 지역의 지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여 빈집을 확보하고 농사지을 땅을 마련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역 정착은 지역 멘토를 통해 알아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농사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다양하고 폭넓게 경험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밭농사의 경우 하고 싶은 작목을 선택하게끔 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마을 차원에서 마을살이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화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 필요한 지원 제안

주거, 멘토, 운영비 지원

문화생활을 공유하고 농사 위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교육 문제, 문화적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토의해가면서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현재의 형태로는 독립이 아니라 고립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정책화 하는 작업에 필요한 것은 주거 문제 해결과 1차 정착에서 지역의 멘토를 통해 2차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턴 식의 형태는 서로 충족하기 어려워 반대다.

필요한 사업으로는 청년층 멘토 혹은 운영을 담당하는 곳에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을 들 수 있다. 청년층 자체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청년층을 품어주는 곳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강사비 등에서도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좋은 뜻으로 시작하였으나 버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작된 여러 사업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2-7) 충청남도 아산시 아름드리영농조합법인

○ 면담자: 아름드리영농조합법인 대표

○ 면담내용

◎ 운영 현황

아름드리영농조합의 시작

아름드리영농조합은 2013년에 설립되었다. 조합원은 40명이다. 기존에 지역 농민들에 의해 결성된 ‘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가공품을 중심으로 하는 영농조합을 재결성하게 되었다. 흠소핑을 주로 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사무실은 제터먹이 협동조합에서 무상 임대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차원에서 청년층 인큐베이팅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30~40명의 지역의 청년층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일부 반대도 있다.

지난 30~40년간 한살림 등 8개 조직을 만들어 왔다. 이제 더욱 지역에 집중한 형태의 아름드리 영농조합을 통해 전체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아산의 모든 농민들이 함께하는 아산농민 재단도 만들어졌으며 이곳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 충남 친환경청년농부 육성 사업은 아산시 음봉면에서 진행 중인 신활력 사업의 밑거름 조직으로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다. 2017년에 실시된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땅을 구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작년에 선발된 10명 가운데 8명이 나간 상태이다. 중도 포기자만 30~40%에 이른다. 아산권역은 아산시와 천안시, 예산군을 지역으로 하

고 있다. 현재 아산 지역에는 청년층만 20명에 이르는데 이는 친환경청년농부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사업까지 포함한 숫자이다. 이들을 모두 아울러 그룹별로 법인화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아름답리영농법인 1그룹, 소가공 4그룹, 사업자 법인 5그룹을 고려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의 문제

청년 농업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기존의 농민들과 완전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생활방식도 안 맞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있다. 기업형태의 영농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청년층 스스로가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운영 시스템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하우스 2동 정도의 농업 규모로는 연매출이 너무 적어 유기가공품 공급처로서 시작을 고려하고 있다. 실무자 없는 가공공장을 전제로 하면 농작물 수확은 일주일이 2번 정도만 하면 되어 일손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판로는 한살림으로 내려고 하고 있지만 기존의 농가들도 이미 포화 상태라 쉽지는 않은 상태로 도농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 역시도 삶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푸른들영농조합

푸른들영농조합은 1999년에 만들어져 12년간 이호열 대표가 끌고 갔다. 제턱먹이는 2013년도에 만들어졌다. 한살림 대표와 생산자 연합회 회장을 동시에 하느라 쉽지는 않았다. 4년간의 논란의 시간을 겪으면서 대표직은 그만두게 되었다. 푸른들영농조합을 꾸려 나가면서도 늘 고민했던 것은 지역 농민과 관련된 조직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었다. 큰 규모의 조직은 고속 성장을 해 나갔지만 실제 농민의 소득은 계속 떨어졌다. 조직 안에서 실무자는 많아져 복지 관련 비용이 늘어갔으며 매출이 성장되는 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생산자들의 생산비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1999년 푸른들영농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3년간을 지역에서 준비를 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세계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농민들과 활동가들의 상위의 운동의 영역에서 나와서 지역으로 돌아가 지역 농민들이 주도가 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각성하게 되었다. 전농이 출범하기 전까지 충남농업협의회 사무국장 일을 하고 난 후 손을 떼게 되었는데 당시 농업

계는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 자색농민회 3개 단체가 주도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거기에서 벗어나 1994년 유기농업을 하던 농민들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1996년도에 한살림 생산자 중심으로 아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농업을 설계하게 되었다. 이렇게 3년간 설계해서 나온 것이 아산 지역농업의 시작이다. 그 핵심은 쉽지 않은 유기농 농사로 농민들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유통 가공 법인을 만들어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하자는 것이었다. 농민들이 출자하고 농민들의 재원으로 하겠다는 원칙으로 지금도 아산 12개 사업소는 모두 농민의 자원이다. 실제 푸른들영농조합법인 농민들의 출자금은 45억 정도이다. 회원들은 350명 정도로 아산 한살림 농가들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후 아산시 친환경5개년계획도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설계했다. 푸른들영농조합의 성장과 함께해나간 것이었다.

지역으로의 복귀

이후 복지 문제를 위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2000년대 초기 홍성이 면 단위 운동이고 홍천이 마을 단위 운동이었다면 아산은 본래 군 단위에서 시작한 시 차원의 운동이었다. 80년대 중반 경축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논농사와 함께 ‘소 키우기’ 운동에 전력을 쏟던 시기였는데 수입 소에 의한 소 값 파동으로 마을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아산에서 마을 운동이 무너지게 되면서 한살림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한살림 운동 전에는 서울에 있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했다. 서울 6구역을 나누어서 한 구역씩 쌀을 배달했다. 그러다가 소 값 파동으로 마을 단위 운동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었다. 이호열 대표의 동네는 이순신 장군의 묘역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지명이 ‘산소마을’이다. 자기 땅이 없이 관리를 해주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당시 마을에는 유기농업 실천 농가가 열 명 정도로 적어서 우선 마을 운동을 통해 1996년도에 시 단위를 건설하고 그 동력으로 다시 마을로 돌아오고자 설계했다. 당시 마을에는 100가구 정도가 있었는데 교회와 농산물 직거래를 시작하면서 그전까지 100% 이자를 갚던 것에서 YMCA의 10% 이자로 빌려주는 운동도 해보았으나 소득이 늘지 않아 여전히 가능한 것을 경험하고 금융이 아닌 실무로 장사를 해보는 쪽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쌀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서울의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통해 남은 이득으로 송아지 사기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큰 실패로 돌아가면서 조금 더 긴 호흡을 위해 시연합회를 결성하고 거기에서 지역 농업을 설계하고 그 기반으로 푸른들영농조합

을 만들게 된 것이다.

아산농민재단과 청년 지원

하지만 다시 조직은 성장하고 자본은 축적되었지만 농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아 생각한 것이 소득보장직불제였다. 350여 회원의 매출 목표치를 세우고 3년간의 소득을 평균 소득으로 정리해서 병충해 등으로 농사가 잘 안되면 목표치의 80%까지 조직에서 보전하는 방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초기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실제 집행해야 하는 건은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금이 쌓여가면서 친환경 RPC 사업, 장학사업, 사회환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 등 논란의 시간을 거치기도 했지만, 기금 30억 가운데 10억은 남겨놓고 20억을 출연해서 아산농민재단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산농민재단의 역할인 사회 환원과 지역 농업 연구 등 역할이 만들어져 가고 있으며 이번에 청년농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었다.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청년농을 육성하는데 합의가 되어 청년이 땅을 구입하지 못하는 문제는 재단이 사서 빌려주고, 거기에 집을 짓고 농장을 운영하고 멘토법인들은 교육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아마 그런 식이요. 방향은 그래요. 청년들이 와서 돈 한 톨 없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겠다고. 그리고 농사지을 의향이 있는 분들은 경영코스를 만들고 안착시키는. 그게 이제 전체 조직에서 풀어나갈 부분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추려내서 아 름드리가 실제 멘토링을 해나가는 거지. 사업성, 유통, 가공 이런 것들...(대표 면담)

유기농업 철학과 청년 육성 프로그램

롯데사업의 성과를 1년 안에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유기농 인증까지의 과정도 있어서 유기 농 필지를 얻은 경우에는 유기농 생산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부 라도 청년에게 양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유기농업을 오랫동안 해 온 입장에서 농업 문제 를 소득 개념이 아닌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판매하는 로컬푸드 문제 역시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농민철학의 통해 소농들을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에 게는 좋은 것을 제공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청년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산은

거주지 문제도 쉽지 않은 편인데 이를 위해 2~3개월 청년층이 머물 숙소도 계획하고 있다. 또 경영코스를 통해 정착하도록 지원도 이루어지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유통, 가공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층에게 ‘장’을 깔아주고 그곳에서 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살림에서는 30년 비전을 설계 중에 있는데 농가 평균 64세인 농민들에게서 향후 30년의 비전이 나올 리가 없다. 청년층에게 맡겨야 한다.

◎ 교육 내용

현장 지도

아직은 특별히 없으며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다양한 지역 조직의 참여를 통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다. 농사와 관련한 기술은 순회하면서 작부 설계에 관한 상담을 해주고 있고 지역의 임원들도 돌아가면서 청년농을 만나고 있다. 지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반이 있는 육성농 청년들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작년 1년의 경험으로는 기존의 농민들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갖추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 사업 지원을 통해 3년은 호홉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안정감과 여유는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필요한 지원 제안

단계적 과정

아산에서는 80년대부터 협업농장을 구상해보기도 했으나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여건이 달라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농업의 어떤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당위성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 그저 1년에서 2년, 3년 코스로 농사를 배우고 직접 가꾸고 경험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실제로 아산은 청년들이 내려와도 먹고 잘 곳이 없는 형편이라 지역의 일을 도와가면서 하우스 한 동 정도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거기서 농사짓고 남은 수익은 가져가는 과정을 우선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친환경농부 사업보다 앞서서 해야 할 교육 단계일지도 모른다. 아무런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지역 사회를 배우게 하고 농사도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해서 시작부터 협업의 형태로는 정서도 안 맞을 가능성이 크고 갈등 문제도 우려된다.

청년농부들이 멘손을 들어와서 2~3개월 거주하고 지역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사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1, 2년 과정의 실천농장 형태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의 법인이 준비하면 좋을 텐데 기존의 사업도 있어 쉽지는 않다. 멘토로서 판로 문제는 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며 최근 들어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다. 멘토로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청년들의 작은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멘토를 정해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게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8) 충청남도 논산시 들녘영농조합

○ 면담자: 들녘영농조합 대표

○ 면담내용

◎ 운영 현황

들녘영농조합의 시작

청년 농장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들녘영농조합 대표는 11년 전에 귀농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아버지의 땅을 농어촌 사업 은퇴시스템으로 국가에 귀속했다가 법인형태로 재임대하게 되었다. 당시 3년 늦게 귀농한 친구는 친환경청년농부 1기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하우스를 짓기도 하고 개보수를 통해 개인의 농사에서 청년 협업 농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논산에서는 학교급식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친환경 분야를 유통사업단이 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았다. 농가 조직화도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하자는 농민들 40여 명이 모여 새롭게 친환경농업 조직을 짜기 시작했다. 현재는 50여 명 이상 되는데,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논산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하고 없는 농작물은 광역사업단과 연계하면서 공급을 맞춰나가는 중간 역할

을 해오고 있다.



〈그림 15〉 논산시 들녘영농조합법인 전경

회원의 이탈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현재까지 운영비로 2억 8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상태이다. 사실 아산이나 천안에서는 땅을 구하지 못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으나 논산에서는 땅은 법인 차원에서 청년층에게 다 제공되고 있다.

다음 단계로는 멘토 농가들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청년농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또 재정적으로 탄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멘토 법인이 청년들을 잘 견인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논산 들녘 법인은 이를 통해 조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친환경 조직이 강화되고 청년층이 자리 잡게 되면 고령화 문제도 자연 해결될 수 있고 지속가능성도 담보된다.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을 통해 3년 정도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다.

지역 청년의 참여와 다양화

사업대상자인 청년들은 지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개를 받았다. 여기에는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 친구도 있고 그 가운데 포기한 친구들도 발생했다. 작년 12명, 올해도 12명이 선발된 상태이다. 총 24명 가운데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기반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한 한 법인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그 역할과 책임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불되며 가정이

있는 경우는 300만 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기반이 꽤 있는 친구는 100만 원 정도를 주는 등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영농조합 법인은 생산만 해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하여 향후 방향은 법인을 농장화 시키고 제조와 가공까지 확대하는 것에 있다. 로컬푸드로 제빵을 해왔고 카페 운영도 함께 하고 있는데 체험농장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시설하우스의 생산력이 강화에 힘쓰고자 한다.

생산 여건의 마련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 하우스 개보수 쪽에 힘을 쏟았다. 측면 개폐를 통해 하절기에는 노지 수준으로 다 오픈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렇게 되면 시설하우스를 놀리지 않고 작물을 생육할 수 있고 작업 환경도 선선하게 좋아지게 된다. 결국은 생산이 안정적이어야 매출에 반영될 수 있다.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으로는 기존 하우스 개보수를 통해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끔 노력했다. 그렇게 하우스를 개보수하고 지역의 멘토와 청년 1~2명을 매칭시키는 단계로 이어갔다. 생산물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가고자 함이었다. 논산에서는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친구도 존중하지만 협업의 모델로 나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협업의 모델이라는 것은 필요한 자금은 쓰고 남는 부분은 박스 제작 등 공동의 과정에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어 쓰자는 개념이 된다.

법인에서는 멘토 차원에서 하우스 시공과 A/S 등 업체 선정, 시설 설계 등을 모두 맡아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농지 활용이나 지역의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 안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에 대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지역 농협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귀농과 청년사업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 관련 일을 하다가 농업이 전망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40년간 딸기 농사를 해왔다. 그러면서 지역 조직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다가 아들이 귀농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많이 하다가 이후에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받고 믿어주시고 하게 되었다. 이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친환경 농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귀농한 친구와 함께 청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청년농들은 행정적인 역할이나 물류 담당, 생산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 청년층은 반드시 농

사짓는 농민이 아니라 물류 유통 전문가, 행정 전문가, 빵 전문가 등 각자의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는 아이쿱 제빵사를 청년농으로 선발하여 제빵 쪽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홍성이나 아산은 친환경 농업 관련 지원이 많은 편인데 논산은 지원이 전무하여 발로 뛰는 수 밖에 없었다. 현재 2011년에 준공되었으나 도산한 딸기 클러스터 단지 900평을 법인에서 인수하기도 했다. 그 곳에서 제빵제조와 롯데 수퍼나 학교 급식에 필요한 농가공품을 냉동하고 저장하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층이 지역에 잘 정착하게끔 역할을 만들어 배치하고 생산물을 잘 판매하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협업의 역할을 해내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생산물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의 상황이 힘든 구조임을 인식하고 월급 받는 농민을 육성해서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어주고자 한다. 향후 독립을 희망하는 농민에게는 법인 차원에서 시설이나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생들의 거주지 마련이 쉽지 않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대전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도 많다.

조직의 강화

작년 사업 이후 1년 사이에 논산에서는 조직이 많이 강화되었다. 다음 세대 농민을 육성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니 논산만의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영농조합법인으로는 한계를 느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논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과 동일하다. 논산은 친환경 농업 교육이나 공동체 활동 등 관련 인프라가 매우 척박한 편으로 기반 없는 청년층이 진입하기도 쉽지 않아 이제부터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다. 충남의 친환경청년농부 사업으로 이제 모일 수 있는 틀은 물론 시도할 수 있는 명분과 상황이 만들어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플러스 사업이 되면서 내년에는 6차산업화 하면서 자금을 받아 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역 농업인 모임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품목연구회가 있지만 자율적인 조직은 없다. 논산 청년농 사업을 통해 논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조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작년부터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힘든 점

힘든 점으로는 친환경농부 사업이 1년 정도 진행되었는데 청년들에게 친환경 인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사고로 별레를 잡기 위해 농약을 몰래 치는 일이 발생하여 롯데에 납품하는 대파에서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다. 손실이었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교훈이 되는 경험이었다. 법인 관리 하우스에서는 자재나 영농 형태가 같은 편이지만, 농장 기반이 있는 육성 단계 청년농에서 일어나 미처 관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고 말았다. 또 지역에서 관행농업을 하는 농가들의 조언을 듣고 한 구멍에 두 포기를 심어야 하는데 여덟, 아홉 포기를 심어버려 대파 농사가 실과가 되는 일도 발생했다. 교육한 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보다 통일된 친환경 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롯데 사업으로 5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역법인이 실력을 키울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논산에서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통해 유통은 물론 작기 작부에 대한 실력 등도 길러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논산의 친환경농업 급식을 통해 기회를 살려나가고자 하고 있다.

◎ 교육 내용

협업 기본

육성농의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아직 경험이 없는 창업농의 경우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트랙터 운전부터 상추 따는 방법까지 함께 배워나가는 협업을 기본으로 하고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현재 하우스에서는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 로테이션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생산관리자의 통제 하에 그때마나 필요한 작업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다. 기술센터 등에서 교육을 받는 대신에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교육을 소화해 내고 있다.

◎ 필요한 지원 제안

현장 기반 교육과 지역의 다양한 역할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받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농업 연수를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제안했다. 공공성이 있는 법인이나 농장을 지정해서 그 농장에서 연수를 하면 멀리까지 교육받으러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창업농 지원금에 대해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정적인

때까지 생활비 개념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논산의 친환경농업인연합회나 법인에서는 학교 급식 참여 농가나 청년층은 어느 정도 기본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보려고 제안하고 있다. 아직 기반이 없는 청년들 일부는 교육을 받는 시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농사를 지으면서 품을 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법인에서 교육이 대체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거주지와 관련해서 논산은 농지가 많고 땅값은 비싸지 않은 편이지만 외부인에게 내농기를 꺼려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교육된 민간전문가를 두고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친환경 분야 전문가의 도입도 필요하다.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이 가능하도록 법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법인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서 지역에 청년이 남게 되면 고령화 되어 가는 농민들과 세대교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친환경농부를 육성해 놓으면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이 없으면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2.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의 특성

여기에서는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에 대한 심층 사례 조사를 통해 실천농장의 운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농장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여 실천농장의 모델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실천농장 운영 분석

(1) 실천농장 운영 분석 항목과 결과

실천농장의 운영 분석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9가지 주요 고려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나가
고자 한다. 각 항목에 따른 세부 항목은 표 25와 같다. 조사 항목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종
구성하였다. 결과는 표 26과 같다. 여기에서는 8개소의 실천농장을 임의로 지역 이름으로 대신
하고자 한다.

<표 25> 운영 분석 관련 실천농장 조사 주요 고려 항목

항목	세부 항목
① 조직	조직 형태, 의사결정권
② 기본적 농업	품목, 기술 습득 기간, 기술 교육 여부
③ 몸, 버릇 등 경험	를
④ 물적 기반(농지 및 시설)	규모 및 관련 시설, 생활비, 농지 임차, 보조금, 융자
⑤ 인적 기반	책임자(멘토)의 역할,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⑥ 동기	교육적 장치, 교사로서의 역할, 통제권
⑦ 생산	재료비, 인건비, 임차비(토지)
⑧ 판로	판매처
⑨ 향후 진로	농지 임차, 거주지

<표 26> 8개소 실천농장 운영 대조표

항목	귀농귀촌 자원			자체			충남 친환경농부 사업	
	금산 채류형 농업창업 교육센터	순창 귀농귀촌 지원센터	화진 현장귀농학교	말양 감물생태학습관	홍성 젊은협업농장	곡성 향귀협동조합	아산 이름드리 영농조합법인	논산 들녘영농조합
① 조직								
조직 형태	없음	사단법인(귀농 운동본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방지 상태)	다중이해자 협동조합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의사 결정권	따로 없음	귀농운동본부. 거버넌스 운영 사업 군 승인 사무처 결정	귀농자 6명, 의사결정자는 교장과 사무장	지역주민 15명. 현재 운영 안 됨	지역 주민 50여명	귀농귀촌인 중심 30여명	친환경농가 40여명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회원 50여명
② 기본적 농업								
품목	시설재배(딸기, 표고버섯, 상추, 고추 등)	밀 시설채소	산채농사, 시설채소(파리 고추, 애호박)	논농사, 축산 노지채소	논농사, 시설채소	논농사, 노지채소(고추, 감자, 깨 등)	논농사, 시설채소(오이, 호박, 토마토, 상추, 깻잎), 과수	논농사, 시설채소, 딸기(60% 계획 중, 내년 봄부터 출하)
기술 습득 기간	50시간+역량 개발 40시간(필수), 귀농대학100 시간	단기 1박 2일 중기 4~6주, 장기 1년	단기 8박9일 장기합숙 8개월	1년 매달 한 반씩 (가톨릭농민회, 부산교구말양 분회)	1년~2년	1년(계획 중)	2년	2년
기술 교육 여부	기본적인 농업재배 관련 기술 및 농지법, 주택교육	농정원 과정 센터교육 활용. 함께 배워가는 방식	기본적인 농사교육, 단기 5회, 농정원2회, 귀산촌2회, 생활기술, 작정기술 등 연 1~2회	함께 자내면서 같이 배워가는 방식	기본적인 농사 기술 교육. 특강에 의한 다양한 교육	계획 중. 난로, 화덕, 적정기술, 용접, 목공 교육 포함	현장 수시 지도, 필요에 따라 교육	기본적인 농사교육, 친환경작기, 방제(천연농약 제조)
③ 몸, 머릿 등 경험								
룰	자유롭게 맡기고 있음	오전 4시간(동절기 8~12시, 하절 기5~9시)	9~18시(봄,가 을) 5시 반(5월말)	새벽 일하기. 9시 조회, 8시, 12시, 6시 식사	7시 시작	“농사는 같이 지어야 한다”는 원칙	자유롭게 맡기고 있음	7시~저녁
④ 물적 기반								
규모 및 시설	100평 개인 텃밭 살습농장(딸기, 표고버섯)	하우스 4동, 노지 5,000평 (밀 재배)	하우스700평, 노지 1,500평, 임야 4만평	논 2,800평(300 평 임대), 노지 800평	하우스1,500평 , 논 3,000평, 다목적 화관	논 400평, 밭 700평(임대), 공방, 목공실 카페	하우스2동 +알파	기존 법인 하우스40동, 100동 추가 예정

항목	귀농귀촌 지원			자체			충남 친환경농부 사업	
	금산 체류형 농업창업 교육센터	순창 귀농귀촌 지원센터	화천 현장귀농학교	말양 감물생태학습관	홍성 젊은창업농장	곡성 향구네협동조합	아산 이름드리 영농조합법인	논산 돌곶농조합
	약초와 블루베리 50평)			내년 2,000평 예정				6차산업화시설 매입
농지 임차	센터 소유	센터 소유	임대	일부 소유	임대	일부 소유	일부 소유	임대
생활비	없음	없음	농산물 소득 분배, 통장 각자 관리	50만 원/월	농산물 소득 분배50만원/월 (1년차), 100만원/월(2 년차)	자기 소득	자기 소득	200만원/월
보조금	군 지원 국도비하우스 지원사업	창년귀농장기 교육, 군 지원	창년귀농장기 교육, 군 지원	없음(부산 가톨릭 센터, 가톨릭 농민회)	창년귀농장기 교육 삼산장학재단 지원 (30만원/월/명* 3)	없음 (협동조합, 후원금)	창년농부사업	창년농부사업, 학교급식사업
융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농축산식품부 사업(후계영농 자금) 활용	없음
⑤ 인적 기반								
책임자의 역할	교육센터 내 공무원 파견 1명, 지역 멘토	소장, 지역 멘토 역할 큼	교장 및 이장 출신 혹은 이장, 졸업생, 지역 멘토(산립) 역할 매우 큼	신부님, 원칙과 철학이 강한 편	총괄하고 있으며 역할 매우 큼	역할 큼	그렇게 크지는 않음, 내년부터 프로그램 계획 중	작목별 지역 멘토10명, 역할 매우 큼
지역공동 체 활동 참여	각자 역량	지역 동아리 활동	4H 모임, 6~7가:지역 농사도우미 역할, 외국인 노동자	말양시 생협 등 너른마당, 송전탑 공간	다양한 활동 기회 있음	곡성창년들(후 계농) 모임, 전국 싱글 모임	한살림 창년위원회(예 비생산자제도 활용 중)	없음
⑥ 동기								
교육적 장치	포함, 자치회 활동	자유롭게(토종 모임 등). 농창업교육(죽 공예,유통)	프로그램에 포함, 흙 강독 숙제 부여	계획 중	자녀 시간 교양 강의, 마을세미나 참석	내년에 계획 중, 책 추천 정도	내년 프로그램 계획 중, 1박2일 행사 등 예정	작부, 인문학 강의 계획 중, 이직 책박
교사로서의 역할	없음	없음	큼	자율적	개인면담 및 지도	도움 요청 시	없는 편	권역 대표 멘토 역할

항목	귀농귀촌 지원			자체			충남 친환경농부 사업	
	금산 제류형 농업창업 교육센터	순창 귀농귀촌 지원센터	화천 현장귀농학교	말양 감물생태학습관	홍성 젊은창업농장	곡성 향꾸네협동조합	아산 이룸드리 영농조합법인	논산 들녘영농조합
통제권	자율적	자율적	있음	자율적	새벽 출근 시간 명확히	자율적	있는 편	있음
⑦ 생산								
재료비	교육센터 전체 운영비1억, 실습농장 3천만원/년	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센터 부담)	210만원+알과, 단기교육 실습비	240만원	전체 지출의 20%, 밥 값10%	자기 농사 (자부담)	각각 다름	-
인건비	센터 관리비로 일부 발생함	관리자(일당 5만원)	없음(5월 중순~7월 중순 사람 쓰기도)	없음	전체 지출의 70%	없음	자기노동 가족 도움받는 경우도	2,700만 원/월
임차비 (토지)	없음	사업에 따라 다름	농사규모에 따라	없음	25만원/10a/년	농지 임대해 줄 예정	1백만 원(하우스500 평)	없음
⑧ 판로								
판매처	자급자족, 일부 자인 판매	작거리(꾸러미 , 지역장터, 학교급식 등	강원유기농(두 레생협연합), 작년 인증 취소 가락시장 판매	내부 처리 우리동 살라기(밀양분 회)-부산교구	홍성유기농70 %, 작거리 30%(식당들)	자급자족, 쌀은 지인 창년쌀은 다 팔아줄. 향후 가공. 프리마켓	각자 (1명: 한살림, 2명: 인터넷 판매, 1명: 롯데, 작거리)	학교급식 70%, 롯데, 대형마트, 로컬푸드매장3 0%
⑨ 향후 진로								
농지 임차	지역에서 가능	텃밭	지역에서 가능	지역에서 가능	지역에서 가능	지역에서 가능	지역 정착 목표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거주지	지역 정착	순창 쉽지않음, 5년 장기 임대예정	4~5년 임차 1.기숙사,임시 관사 2. 기타 2채	지역 정착	지역 정착(마을 폐가)	지역에서 가능	지역 정착 목표	단기성무상 채류시설 지원 예정

(2) 세부 운영 분석 내용

① 조직

우선 조직과 관련해서는 조직형태와 의사결정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직형태는 영농조합법인 형태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홍성의 경우 다중이해자협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외에 귀농귀촌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금산의 경우 따로 실천농장의 조직 형태가 없었으며, 순창은 귀농운동본부 위탁으로 이루어져 사단법인 형태였다. 논산의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 형태였다.

의사결정권은 대체적으로 조직 형태와 관련이 깊어 영농조합법인이나 협동조합의 경우 회원들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편이었으며, 화천의 경우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학교장과 사무장이 결정하고 있기도 했다. 순창의 경우에는 운영은 귀농운동본부에서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군에서 승인하고 최종 결정은 사무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② 기본적 농업

기본적인 농업 가운데서는 우선 품목은 시설재배가 가장 많았고 그 가운데서도 6군데에서는 시설채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순창은 200평짜리 하우스 네 동 가운데 하나는 비닐이 없는 상태인데 블루베리를 심었고, 나머지 세 동은 이중하우스이다. 올해는 방울 토마토와 토종 고추, 사과 참외와 토종 오이 등 토종 작물을 심었다. 금산의 경우 표고버섯 등 환금성 작물이 포함되기도 했다. 화천에서는 전략적으로 파리 고추와 애호박 두 작목 정도로 선택하여 집중도를 높이기도 했다. 애호박은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목이고 파리 고추는 하우스 재배로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 곡성에서는 노지채소 재배를 통해 지역 농사를 배워가고자 하고 있기도 했다. 보통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혹은 하우스로 재배 가능한 작물들을 선택하고 있었다. 하우스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연중 재배로 최소한의 소득 확보를 위함이라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외에 청년들과 논농사까지 짓고 있는 곳은 밀양과 논산, 홍성 등이 있었으며 순창에서는 밀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술 습득 시간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1년으로 보고 있으며 아산과 논산의 사업의 성격상 2년간의 과정을 기본으로 두고 있기도 했다. 홍성의 경우에도 청년층의 사정에 따라 2년 정도까지를 보고 있었다. 순창과 화천의 경우 농정원의 장기교육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8개월 과정이었다. 금산의 경우에는 교육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교육학습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했다. 순창과 화천에서는 각각 1박 2일과 8박 9일의 단기 과정이 개설되어 있기도 있다. 순창에서는 4~6주의 중기 과정을 두기도 했다. 이러한 단기, 중기 과정을 미리 겪어보고 1년에서 2년간 이루어지는 실천농장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기술 교육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농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금산과 순창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나 귀농귀촌센터 내 교육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화천과 곡성에서는 구들과 난로, 화덕 등 적정기술 교육과 집짓기, 용접, 목공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화천에서는 단기 과정을 1년에 5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이 함께하는 과정 2번, 그 외에 귀산촌 과정 2과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홍성에서도 특강 형식으로 농촌 살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순창과 밀양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배워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밀양의 경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특별한 것은 없고 직접 함께 지내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부러 짜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농사 관련 프로그램은 시기별로 퇴비 만들기 등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인문학 수업이 있었으며 외부 강사를 통한 특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기술 교육은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매달 모임을 갖고 있다. 곡성의 경우에도 먼저 귀농한 선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으로 자기 농사를 원칙으로 밭씨 파종부터 재배기술까지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가공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산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③ 몸, 버릇 등 경험

청년층이 농촌에 내려와서 처음 농사를 짓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농사에 대한 몸과 버릇 등을 익혀가는 과정일 것이다(김정섭, 2018). 이와 관련한 틀에 대한 항목에서는 금산과 아산에서는 청년들에게 자유롭게 맡기고 있었고 그 외에는 나름의 틀이 존재하고 있었다. 홍성과 논산에서는 일반 농민들과 같은 일정으로 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저녁까지 농사를 짓고 있었다. 밀양에서도 새벽 일하기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9시 조회와 오전 8시, 12시, 18시 식사 시간이 준수하고 있었다. 그 외에 일하는 시간을 알아서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인다. 순창의 경우에는 농정원의 장기교육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오전 4시

간 준수가 이루어져 동절기에는 8~12시, 하절기에는 5~9시에만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화천의 경우에는 5월말에는 5시반, 봄과 가을에는 9~18시로 하고 있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는 각자 선택에 맡기게 된다. 새벽 작업이 나오면 새벽에 혹은 주말에도 작업을 해나가는 방식이다. 10월 셋째 주에는 하우스 작물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곡성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는 같이 지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④ 물적 기반

물적 기반에는 농사 규모 및 관련 시설과 생활비, 농지 임차 관련, 보조금, 용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농사 규모 및 관련 시설로는 기본적으로 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며 규모는 작게는 2~3동 정도에서 많게는 논산의 경우 40동 정도였다. 논은 400평 소규모에서 3,000평 가까이 가지고 있는 곳이 두 곳 있었다. 노지 밭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세 곳 정도였다. 화천은 산촌이어서 임야도 4만 평 가지고 있었다. 밀양은 노지를 늘릴 계획이며, 논산은 농지 2만평에 기존 법인 하우스가 40동으로 하우스 100동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 홍성은 하우스 8동, 논 3,000평 규모이다.

금산은 딸기와 표고버섯, 특작을 위한 하우스를 각각 50평씩 실습 농장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외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한 가구당 100평 텃밭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시설로는 홍성에는 다목적 회관이 있어 교육생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곡성에도 공방과 목공실, 카페가 마련되어 있다. 논산은 지역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6차산업화 시설을 매입해서 가공 쪽으로 확대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농지 임차 형태는 금산과 순창은 센터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의 농장에서는 주로 임대로 이루어지나 일부 소유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생활비 지원은 절반 정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농사짓는 것에서 충당하고 있다. 금산의 경우에는 교육생에 따라 인근 지역의 농가들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화천과 홍성에서는 하우스 농사를 통해 해당 연도에 참여하는 교육생 수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있었다. 화천의 경우 생활비가 따로 주어지지 않지만 학교에서 하우스를 제공하고 있고 농자재도 100% 제공하고 하우스에서 생산된 만큼 소득이 된다. 홍성의 경우 보통 1년차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돌아가게 되며, 2년차가 되면 월 100만 원 정

도가 된다. 그 근거는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농산물 매출이다. 밀양에서는 기본소득 형태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논산의 경우에는 고용 형태로 법인에서 한 달에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보조금은 순창과 화천, 홍성에서는 농정원 장기교육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고, 금산, 순창, 화천 등에서는 군에서 따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아산과 논산은 충남 친환경농부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외에 홍성은 삼선장학재단에서 3명의 교육생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논산은 학교급식 중간조직 지원 예산을 통해 7천만 원의 하우스 자금을 받았고, 2천 5백만 원 가량의 운송 차량을 구입했다. 밀양과 곡성은 내부 사업과 후원금 등이 위주로 보조금은 없었다.

융자는 아산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아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후계영농자금을 활용하고 있었다.

⑤ 인적 기반

인적 기반으로서는 책임자의 역할과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보았다. 책임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농장 차원에서 총괄하고 있는 곳이 순창과 화천, 홍성, 곡성, 논산 다섯 곳이었으며 책임자의 역할은 큰 편으로 나타났다. 지역 멘토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금산과 순창, 화천, 논산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금산에서는 처음부터 해당 작목과 관련한 지역 멘토를 소개하고 있었으며, 순창과 논산에서도 작목별로 지역 농민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었다. 화천의 경우에는 산림 분야에서 지역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같은 친환경농부사업 가운데서도 아산은 아직 멘토의 역할이 크게 자리 잡히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다.

지역 공동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논산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금산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근 지역의 선도 농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것을 장려하고 있어 일부 가운데는 농장을 임대하여 농사짓기도 하는 등 관계가 좋다. 순창은 지역 청년들 모임인 ‘순창청년’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저녁 시간에는 교육적인 장치로 죽공예, 유통하는 친구가 참여해서 농창업교육이 진행되었다. 화천은 지역의 또래 청년들인 4H와의 활동도 장려하고 있었고, 지역의 농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6, 7기까지는 지역 농민의 농사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불만이 제기되기도 해 많이 줄면서 1년

간 크게 불만이 없는 한해가 되기도 했다. 지역 외국인 노동자와도 교류가 있기도 하다. 밀양은 밀양시에 있는 생활협동조합인 ‘너른마당’에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해나가고 있다. 귀농귀촌으로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보다는 지역민이 더 많은 조직으로 40대가 주축이 되어 비교적 젊은 층과의 교류가 가능하다. 숙박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또 거리상 부산과는 한 시간 정도의 거리로 부산귀농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산 ‘온 배움터’와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교류 기회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연계로 충분히 교육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성은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의 경조사는 물론 농업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곡성의 교육생들은 후계농으로 구성된 곡성청년들 모임과 전국 싱글 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다. 아산은 예비생산자 제도를 활용하여 한살림 청년위원회 모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논산은 아직 지역 기반이 여의치 않아 지역 활동은 없다.

⑥ 동기

동기와 관련해서는 교육적 장치, 교사로서의 역할, 통제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교육적 장치로는 밀양과 곡성, 아산, 논산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내년에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홍성과 순창의 경우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화천은 10월부터 계속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 낭독이나 숙제를 따로 내기도 한다. 홍성의 경우 교양 강의를 특별히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열리는 다양한 세미나에 참여하여 교육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순창은 지역에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청년들 모임인 ‘순창청년’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저녁 시간에는 교육적인 장치로 죽공예, 유통하는 친구가 참여해서 농창업교육이 진행되었다. 화천은 기존의 교육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흙과 관련한 강독이나 숙제 등을 통해 교육적 장치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교사로서의 역할은 화천과 홍성, 논산의 경우 매우 크며, 밀양과 곡성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었다. 금산과 순창, 아산은 특별히 없었다. 특히 홍성의 경우 개인의 성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면담 및 지도를 담당하고 있어 교사로서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권은 금산과 순창, 밀양, 곡성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었고, 순창과 홍성, 논산은 강하

게 작용하고 있었다. 아산의 경우 교육생들의 하우스 재산권이 법인에 있어 통제권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⑦ 생산

생산과 관련해서는 재료비와 인건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재료비와 관련해서는 금산의 경우 교육센터 전체 운영비는 1억 원이었고 그 가운데 실천농장과 관련해서는 일 년에 3천만 원 정도 든다. 순창은 재료비는 일인 당 백만 원씩 오백만 원을 지원받았고, 지출이 많아 자비로 쓰기도 하고 센터에서 지원받기도 했다. 농사 관련 재료비는 23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다른 단기 교육 과정에 실습비로 대체한 경우도 있어 더 들었다. 단기 교육 과정에서 실습비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밀양은 1년에 240만 원 정도이다. 홍성은 전체 지출의 20%가 쓰이고 있으며 교육생들을 포함한 밥값만 전체 지출의 10%에 해당한다. 곡성은 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아산 역시 농장마다 다르며, 각자 부담하고 있다.

인건비는 금산의 경우 교육센터 관리비 차원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다. 순창은 교육비 차원에서 일 당 오만 원 지원받고 있다. 화천과 곡성, 아산은 기본적으로 없다. 화천의 경우 농번기인 5월 중순과 7월 중순에는 사람을 쓰기도 한다. 방제는 기본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밀양과 곡성은 인건비는 따로 없다. 홍성의 경우 전체 지출의 70% 정도가 쓰이고 있다. 논산의 경우 월 2,700만 원이 교육생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임차비는 금산과 밀양, 논산은 없다. 순창은 지원받은 곳마다 조금씩 다르며 센터 이름으로 빌려서 처리하고 있다. 화천의 경우도 해마다 농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 홍성은 연간 10a당 25만 원 정도 든다. 곡성은 내년부터 교육생에게 농지를 임대해 줄 예정에 있다. 아산은 하우스 500평에 1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논산은 토지 임차비는 다 무상이다.

⑧ 판로

금산과 밀양, 곡성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내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인에게 판매하고 있다. 금산의 경우 현재 교육생들이 자체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 선도 농가의 작목반에서 공동 출하를 하거나 개별 박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곡성의 경우에는 청년 쌀은 지역에서 다 판매를 했다. 순창은 직거래, 꾸러미, 지역 장터, 학교 급식 등

다양한 판로를 활용하고 있다. 화천은 강원유기농에서 두레생협연합에 판매하고 있어 그곳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올해는 오랜 농지에서 나온 토양 잔류 농약 문제로 인증이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인증을 취소하고 일반 농산물로 가락시장에 판매했다. 밀양은 자급자족이 기본이기 때문에 행사를 포함해서 내부에서 모두 사용하게 되며, 일부 밀양의 귀농인들은 농산물을 부산교구에 있는 ‘우리농 살리기’ 라는 그룹 통해 판매하고 있다. 홍성과 논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셈인데, 홍성은 홍성유기농을 통해 70%가 나머지는 지역 식당 등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다. 아산은 교육생에 따라 다른데 한살림과 인터넷 판매, 롯데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논산은 판매처의 70% 정도가 논산시 학교급식이고 롯데 마트와 다른 매장의 비율이 나머지 30%를 차지한다. 롯데 마트에는 아직 충분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광역사업단에도 청년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청년을 위주로 꾸리려고 하고 있다.

⑨ 향후 진로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는 농지 임차와 거주지 문제로 나누어 확인했다. 우선 농지 임차의 경우 순창을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가능하거나 가능하게끔 도와주겠다는 입장이었다. 순창은 텃밭 정도의 농지 외에는 임차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우선 농지 문제는 현재 학습관이 있는 마을에는 농사짓지 않고 있는 ‘노는 땅’ 들이 많아 임차 걱정은 없다. 아산의 경우 정착을 목표로 한 명은 땅을 아예 샀고 두 친구는 땅을 빌리기도 하고 물려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했던 애들은 다 정착을 한 셈이다.

거주지는 순창의 경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청년 가운데는 땅을 좀 크게 빌려서 나누면 참여하겠다는 청년들이 있다. 거주지는 한 명만 남원으로, 나머지는 순창에 정착했다. 집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5년 정도 장기 임대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잘 없는 실정이다. 이외의 곳에서는 지역 정착이 예상되거나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었다. 특히 화천의 경우 학교에서 집 한 채를 임차해놓고 있다. 현재 기숙사는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졸업한 친구들이 지역에 집을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집 두 채를 마련하여 임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관사 두 개를 새로 수리해 놓고 땅이 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밀양은 현재 학습관의 신부님이나 관련된 분들의 노력으로 주택을 지을 땅은 확보해 둔 상태이다. 마을에 빈집도 있고 학습관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공방에서 집수리를 맡겠다는

분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아산은 원룸을 구해서 사는 친구도 있고, 도시권이 가까워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에는 지역에서 농지랑 가까워서 관리가 되는 거리에서 집도 짓고 살게 할 예정이다. 논산의 경우도 지역 관련 단체와 논의하여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지난 8월 말에는 지역 의원과 농업정책팀장과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이 1년 정도라도 무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고 건의한 상태이다.

(3) 시사점

우선 조직 형태는 실천농장의 지속성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사 결과에서는 지역 농민과의 관계가 강한 곳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형태가, 귀농귀촌인 등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긴밀한 곳에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성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산과 같이 보다 수익 쪽에 집중한 형태는 농업회사법인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밀양과 같이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시작하였으나 지역민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지 못하면 방치되거나 그 역할이 소홀해질 수 있다.

농업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하우스 시설 재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추후 논농사나 노지 채소 등 좀 더 다양한 작목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간으로는 1년의 장기 기간이 필요하며 이외에 사전에 농사를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단기, 중기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실천농장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사의 물은 공동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는 편이었는데, 향후 실제 농민의 생활을 고려하면 교육 과정에서 경험해보는 것은 의미는 크다.

실천농장의 물적 기반은 결국 교육생 수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실제로 화천의 경우 임야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생 수가 적어 임야 관련 농업까지 관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논산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충남 친환경농부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에서 하우스 기반을 더욱 더 확대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년들을 지도, 관리하고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면 적정 규모는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농지만이 아니라 실천농장 내에 관련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들도 확인이 되었는데

농적 생활을 위한 카페나 목공실, 다목적 회관이 마련된 곳도 있는 반면에 농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곳에서는 가공 시설 등을 확충해 가려는 움직임도 확인되었다. 청년들의 농사 이외 시간의 활용이나 농촌 생활 측면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복지 측면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생산 외 확장성을 고려한 가공 시설의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산이나 순창의 경우와 같이 군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대 등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서 기존 군의 시설을 활용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실천농장의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비는 공동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농산물 소득 분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농사짓는 곳에서는 각자 소득 방식이었다. 아직 농사 기술 등을 교육받는 입장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필요해 보인다.

인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책임자(멘토)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장 외의 지역과의 공동체 활동은 향후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데 농장 자체가 지역과 얼마만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농사를 짓는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귀농귀촌센터 등 지역 관련 기관의 교육 과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실천농장에서 농사지 으면서 기술센터까지 방문해서 교육받기보다 현장에 마련된 시설 등을 활용하여 교육 자체가 현장과 밀접히 연계된 가운데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농촌살이와 관련하여 집짓기 나 수리, 용접, 목공과 난로나 화덕 등 에너지 관련한 적정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적 장치는 실천농장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기본적인 농사에 대한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농사 이외에 교양, 인문 혹은 자기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젊은 교육생들의 향후 농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천 농장에서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2) 실천농장 특성

(1) 유기농업이 기반이다

실천농장 8개소에 대한 조사 결과, 실천농장의 첫 번째 특성은 유기농업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한 가운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을 육성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친환경농업적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청년 육성 사업은 충남의 친환경농부 사업 이외에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첫 걸음이 지역 환경과 생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시작된다면 향후 한국의 농업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기존의 현장실습교육 등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지점일 것이다.

(2) 지역 정착을 위한 전 단계로서 기능해야 한다

실천농장의 두 번째 특성은 농촌 지역에서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고 정착하려는 이들에게 지역에 들어가기 직전의 과정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삶의 창구로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한편 역귀농 비율도 만만치 않다. 지역에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 버리는 일은 새로운 이주자에게 기존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기 어렵다. 정말 농업이 맞는지 혹은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일정 기간 탐색하는 과정은 양쪽 모두에게 매우 필요한 시간이다. 마음의 준비만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 생활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실천농장이 기능해야 하며 실제 그러한 특성이 발견되고 있다.

(3) 교육적 기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실천농장의 세 번째 특성은 교육적 기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저 농업만 해보는 것은 지역의 여러 영농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 농업 관련 사업체 등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관련 지원 사업으로는 선도농가실습(멘토멘티제)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서 농업 인턴이나 현장 학습을 해보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실천농장에는 있다. 그것이 바로 실천농장이 갖는 교육적 접근이다. 실제 실천농장의 사례 조사를 통해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적 기능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직 마련되지 못한 농장에서는 향후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발견되었다.

(4) 1년 정도의 장기 교육 과정이어야 한다

실천농장의 네 번째 특성은 1년 정도의 장기 교육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귀농귀촌 관련 상담 등의 과정에서 1박 2일이나 일주일 정도의 단기 코스, 중기 코스로 현장에 직접 내려와 농촌과 농업을 짧게 경험해보는 시도들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농지를 다듬고 벼씨를 뿌리고 풀을 뽑아보고 수확까지 하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또한 그 정도의 시간으로 농촌 생활을 인지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 사계절을 겪어보면서 이주를 결정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장기 과정이 담길 필요가 있다.

(5) 작은 별이라도 소득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실천농장의 다섯 번째 특성은 작은 별이라도 농사를 통한 소득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점이다. 실천농장은 단순히 농업을 경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농업으로 밥벌이가 될 수 있으려면 텃밭 정도의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지어보면서 그로 인한 소득을 획득하는 수준까지 맞출 수 있어야 진정한 농사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혹은 그만큼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미리 느껴볼 수 있다면 농업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6) 지역과 함께해야 한다

실천농장의 여섯 번째 특성은 지역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천농장은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나갈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는 목적과 함께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농사를 짓지 않게 되더라도 지역으로 새롭게 진입할 농촌청년들을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저 농업기술을 배우고 교육받고자 한다면 농업대학 등의 기관도 있다. 하지만 보다 ‘지역’이라는 공간에 집중하여 농촌 지역이 안고 있는 고령화 혹은 과소화라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지역 청년층을 육성하는 노력을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3) 실천농장 모델

(1) 실천농장의 특성과 8개 실천농장 적용 결과

이상의 특성을 토대로 본 연구의 조사지인 실천농장 8개소의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기농업 기반이라는 특성은 금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장에 적용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역 정착을 위한 전 단계로서 기능하는 특성과 관련해서는 밀양에서는 지역 정착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지역 정착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화천 역시 반드시 화천으로의 정착을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았다. 논산의 경우에도 농업을 하는 곳은 논산이지만, 근교인 대전에서 출퇴근 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고 있는 상황으로 실천농장이 반드시 농촌 거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셋째, 교육적 기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특성과 관련해서는 금산은 전혀 그러한 기반이 없었고, 논산 역시 계획 중이었지만, 착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밀양과 아산 역시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는 미비한 상태였고, 곡성은 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1년 정도의 장기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했다.

다섯째, 작은 벌이라고 소득으로 되돌아 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은 전혀 소득 개념이 없었고, 밀양 역시 생활비 형태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산물은 자급자족 하는 상황이었다. 곡성은 아직 계획 중인 단계였고, 논산 역시 200만원 월급을 받고 있어 이러한 특성에 충족되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은 지역 개념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했고, 금산 역시 지역 차원의 연계 등 개념은 부족했으며 체류자들의 역량에 따라 교류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표 27> 8개소 실천농장에 적용된 실천농장 특성 결과

항목	귀농귀촌 지원			자체			충남 친환경농부 사업	
	금산 채류형 농업창업 교육센터	순창 귀농귀촌 지원센터	회천 현장귀농학교	말양 감물생태 학습관	홍성 젊은창업농장	곡성 향가세 협동조합	이산 아름드리 영농조합법인	논산 들녘영농조합
유기농업이 기 반이다	X	○	○	○	○	○	○	○
지역정착을 위한 전 단계로서 기능해야 한다	○	○	○	△	○	○	○	○
교육적 기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X	○	○	X	○	△	X	X
1년 정도의 장기 교육 과정이어야 한다	○	○	○	○	○	○	○	○
작은 별이라도 소득으로 되돌 아 와야 한다	X	△	○	X	○	△	○	X
지역과 함께해 야 한다	△	○	○	X	○	○	○	○

(2) 실천농장 모델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실천농장의 모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년 대상: 20대와 30대 초반의 기반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 기간: 1~2년 장기 교육 과정
- 방식: 교육생으로서 농산물 소득 배분을 통한 생활비 지급 형태
- 특징:
 -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기술 습득
 - 농업 기술 이외에 교양, 인문, 농촌 생활 등 다양한 교육적 기능이 수반
 - 지역에서 생활해 가는 과정을 통해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해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향후 지역 정착 과정에서 지역 네트워크 활용 가능
- 추진 체계:
 - 지역 사회의 합의 하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혹은 협동조합 기반에서 설립 가능
 - 농장 운영은 별도로 책임자(멘토) 마련
 - 필요하다면 지역 멘토를 구성해서 측면 지원 가능
- 보완점:
 - 교육생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책임자(멘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리더십이 요구됨.
 - 공동으로 농사지는 분에 대한 소득 분배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생활비 지원 등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음.
- 사례 조사지: 홍성 젊은협업농장과 같이 완벽한 지역 기반에서 마련될 수도 있고, 순창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같이 귀농인 지원이라는 공적 지원 하에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

3.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의 역할 및 과제

1) 실천농장의 역할

(1) 청년 농업인 육성

실천농장의 역할은 우선적으로는 청년 농업인 육성에 있다. 농지와 거주지, 자금 등 물적 자본은 물론 지역의 공동체 등 인적 자본의 기반이 없는 전혀 청년들에게 실천농장을 통해 농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농업을 승계해 나가는 인력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지역 농업의 전수

청년 농업인 육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농업의 전수와 관련한 부분이다. 실천농장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기반이 전혀 없이 새롭게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층에게 농업을 실제로 지어보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업과 관련한 기초적인 지식은 다양한 채널로 습득 가능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다.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작물들을 지역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일은 교과서 혹은 실습농장 정도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소중한 재산이 된다.

○ 인적 네트워크 형성

실천농장의 다음 역할은 지역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해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농촌 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이란 단순히 농업을 지원받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근원지가 되며, 향후 농촌 생활을 유지해 가는 데 든든한 이웃 혹은 선배가 될 수 있다.

(2) 농촌 청년 육성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의 역할은 청년층 농업인을 육성하는 1차 목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이라도 1~2년간의 농업적 소양을 겸비하여 농촌 지역 공동체 일꾼을 길러내는데 일조할 수 있다. 현재 농촌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을 확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해졌다.

○ 농촌 사회의 이해

새로운 농촌 청년으로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농촌 사회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실천농장 과정은 농업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사회와 부대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에 공감해 가게 되고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 지역 문화의 계승

농촌 사회를 이해하고 이를 학습해 가는 과정은 결국은 지역 문화의 계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촌을 떠나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반대로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농촌이 가진 기대와 희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한 희망은 지역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 그러한 자연 환경이 만들어진 지역 고유의 문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 농촌의 정체성은 지속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라져 가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는 일은 새로 유입된 청년층의 숙제라고 할 수 있으며, 실천농장이 가지는 큰 역할로 봐야할 것이다.

2) 실천농장의 과제

(1) 지역 단위 논의의 필요성: 당위성

지금까지 실천농장에 대한 특성은 물론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사실상 실천농장을 지역 단위에서 마련하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다. 농장 부지만 마련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생활비 등 지원 조건이 구비되는 것으로도 청년이 유입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농사 기반은 물론 농업 이외의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다.

우선은 지금 현재 이 마을에, 혹은 이 지역에 청년층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지역 단위의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한다¹⁶⁾. 그래야 지역의 농가 가운데서건 혹은 법인이나 협동조합 차원에서

선뜻 농장 부지를 내놓을 수 있으며, 생산 지도는 물론 생활 전반에 걸친 책임자 혹은 멘토가 지역 안에서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 역시 초보 농부의 힘으로는 어렵고, 지역 기반의 채널이 구비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농업인 예비자로서 필요한 농업적 요소 뿐 아니라 이후 진정한 농업인으로서 농촌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 위한 농지 확보나 거주 기반,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될 수 있다.

(2) 실천농장 프로그램으로의 확대: 지속성

실천농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실천농장의 운영에서 나아가 체계화된 프로그램¹⁷⁾으로 확대해가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한 영농정착지원금과의 연계 가능성이다. 세부적으로는 이곳에서 1년 과정을 정식 교육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 교육 이수 시간을 대체하거나, 혹은 실천농장 과정을 거쳐서 창업할 경우에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농장(온실) 조성 임대 사업이나 현재 충남에서 진행 중인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의 농장을 확보하여 실천농장 기반 조성과 연결할 수 있다. 이미 거주나 농지에 관한 문제는 실천농장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다. 또 실천농장을 마치고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는 실천농장 과정에서 생성된 지역 멘토와의 관계 속에서 주거 및 농지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해갈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16) 일본에서는 농업차세대인재투자사업(구 청년취농금부금)으로 만 45세 미만의 신규 취농 청년에게 월 150만엔을 최대 7년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지역 단위의 '사람, 농지 플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향후 마을에서 고령화 되어 짓지 못하게 될 농지와 빈집 등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층에게 얼마만큼을 건네줄 수 있을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준비된 지역에 한해서 새로운 청년 취농자에게 농업차세대인재투자사업비가 제공된다.

17) 프로그램(Program)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여러 수단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3) 실천농장의 다면적 기능: 확장성

지금까지 살펴본 실천농장은 아무런 물리적 기반도, 인적 네트워크도 없이 새롭게 농촌 지역에 유입된 청년을 체계적인 영농 교육을 통해 농업인으로 지역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은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소양을 가진 농촌 청년을 농촌 지역 사회에 내보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천농장은 기본적으로는 유기농업의 농사방식을 따르고 있었고 이에 따라 단순한 농업의 전수처가 아니라 보다 지역 환경을 고려하고, 생태적이며, 유기적인 관계 만들기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실천농장이 가진 다면적 기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다면적 기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농장이나 지역의 귀농인 대상 단기 교육 농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농업으로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취약 계층을 보듬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농장이 가지는 이러한 확장성까지 고려한다면 실천농장이 가지는 지역 사회에서의 고유의 역할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 지역의 과소화 문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지역 공동체의 유지에 있어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농가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종사자는 물론 농업경영주 역시 고령화 되어 가는 경향이 빨라지고 있다. 그나마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이러한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경향이 상쇄되고 있다. 관행농업의 고령화와 더불어 친환경농업 부문에 대해서도 젊은 인구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의 농가 비율이 관행농업 수준을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농업 현장의 상황은 이러한 통계상의 결과보다 더욱 더 심각하다. 국내 유기농업의 태동지역이며 유기농업의 메카로 오랜 명성을 쌓아 온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의 초창기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평균 연령은 73세(2015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한살림 생산자 조직으로서 유기농업 운동을 지역 차원에서 이끌어 온 충남 아산시의 친환경농민 단체 역시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업 분야도 친환경농업 분야도 고령화에 따른 후계농 육성 문제가 매우 절실하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1,200명이 선발되는 등 정부는 청년층 육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핵심 항목도 청년귀농인 1만 가구 육성이라는 목표를 전면에 내놓을 정도로 청년층을 향해 있다. 지역 현장에서도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 1박 2일의 단기 교육 과정 혹은 체험 과정과

일주일 가량의 중기 교육 과정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가운데 실제로 농업을 일정 이상 기간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실천농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는 이러한 실천농장이 현재 과연 얼마나 존재하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에서 청년층을 육성하고 실제 농사를 지어보는 장기 과정의 농장을 실천농장으로 보고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단위에서 4개소와 충남 지역 4개소를 더하여 총 8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크게 현황 조사와 운영 분석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실천농장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실천농장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천농장의 특성으로는 유기농업이 기반이다, 지역 정착을 위한 전 단계로서 기능해야 한다, 교육적 기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1년 정도의 장기 교육 과정이어야 한다, 작은 별이라도 소득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해야 한다는 6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분모를 가진 곳을 실천농장으로 하고, 지역 단위에서 실천농장 자체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농장의 역할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들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 농업의 전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꼽을 수 있다. 2차적 역할로는 농촌 청년 육성을 들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농촌 사회의 이해와 지역 문화의 계승으로 정리된다. 마지막으로 실천농장의 과제로는 그 전제로서의 당위성을 위해 지역 단위 논의가 필요하며, 지속성을 위해 체계화된 실천농장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마지막으로 실천농장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을 통해 확장되어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이미 현장에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이유로 농촌을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 농업을 실제로 배워보겠다는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천농장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현장이 필요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수요들을 정책적으로 발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헛된 투자로 그치지지는 않을 것이다.

2. 정책 제언

1)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 확대 방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실천농장을 확대해 가기 위한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우선은 실천농장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으로 실천농장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과 정책적인 지원으로 가능한 영역 모두를 포함하였다.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실천농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확대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내의 역할과 도, 시군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실천농장 내부적 측면

○ 기본 인식과 관련해서는 농촌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층 육성을 목표로, 기반 없는 청년층 지원한다는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한다. 그 방향성은 청년들의 창조성이 발휘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농사가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진로 탐색을 위한 과정으로 꾸려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진입하기에 앞서 장기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농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를 경험하는 교육 과정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와 방향성이 마련되려면 추진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기반 정비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 생계비 혹은 생활비 관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농장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등 운영과 관련한 최소한의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천농장은 우선적으로는 농업 생산력과 기술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책임자의 역할과 관련해서 실천농장의 성격상 책임자(멘토)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사를 지어보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농장은 다수 존재할 수 있지만, 교육생을 체계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실천농장의 책임자의 부담을 덜게 해줄 지역 차원의 선도

농가를 지역 멘토로 두고 적절히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실천농장에서의 과정이 현장 농업연수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

○ 지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실천농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연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실천농장 외부적 측면

○ 국가 차원

-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현재 청년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의 성격으로 진행 중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한 영농정착지원금을 현장 단위에서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농업환경프로그램이나 사회적 농업,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농장(온실) 조성 임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지자체 차원

- 현장 기반 지원 체계: 도나 시군 단위에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실제 현장에서 직접 지원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현장 시설 활용 지원: 향후 먼 단위에서 실천농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혹은 농협 시설 등 지역에 마련된 기반 시설이 교육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 포괄적 지원: 지원 형태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모 형식의 지원 방식이 아니라 실천농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실천농장 코디네이션 교육: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천농장의 책임자(멘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천농장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 과정은 마련하고, 코디네이션 교육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적절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지역 차원

- 지역협의체 구성: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의 이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천농장의 설치와 유지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 단위 계획 구상: 청년 농업인 혹은 농촌 청년이 지역에서 가지는 역할에 주목하여 지역 단위의 계획 구상 속에서 실천농장의 논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실천농장 로드맵

이상의 결과를 통해 충남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지역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봐야할 것이다. 과정으로는 첫 번째로 준비를 하면서 귀농 상담이나 귀농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경험과 기술, 지역 관계망 만들기를 위한 실천농장이 1~2년간에 걸쳐 마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 과정의 실천농장에 앞서 단기, 중기 교육 과정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천농장은 면 단위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면 단위 지역 관련 시설을 활용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이곳에서 1~2년의 과정을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교육 과정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크레딧을 부여하여 이후 다양한 사업에 대한 우대가 이루어지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실천농장에 대해서는 코디네이션(책임자) 교육을 통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년 농부가 되거나 농촌 청년이 되어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준비 과정에서는 충남에서 실시하는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나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선도실습농가(멘토멘티)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며 2019년부터 충남에서는 도시청년 플랫폼 조성이나 선도실습농가 사업을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청년 초보농부 실천농장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3개소 6~9명에게 1명당 2~3동의 실습을 위한 하우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진행 중인 충남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과 함께 이들 사업을 실천농장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의 경우 실천농장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정착 과정에서는 실천농장을 거쳐 청년 농부가 된 경우에는 청년창업농안정지원 사업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 또한 농촌 청년의 경우에는 충남도 타 국에서 실시 중인 지역착근형청년인재육성사업과 사회적경제청년활동가인턴십 등을 연계할 수 있다. 여기에 규모에 따라 농업 기반 자금과 융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는 준비 과정에서는 임시거주지와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고려할 수 있다. 실천농장을 거쳐 지역 정착의 단계에서는

거주지와 농사지을 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역 단위 계획이 마련되어 청년을 맞을 준비에서부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한 이후의 지역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5〉 충남 청년 농업인 실천농장 로드맵(안)

2) 청년 농업인 육성 전략

○ 청년 농업인의 다양한 역할 인식

실천농장 사례 조사 가운데서 실천농장의 교육 대상은 기반 없는 청년층이고 이를 육성하는 곳임에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농업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과소화 되어 가는 농촌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을 배출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활동해나갈 여러 종류의 청년 농업인이 필요하다. 이렇듯 다양한 청년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청년 농업인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

최근에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을 개별 사업으로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체계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국가 차원은 물론 충남도 광역 지자체와 시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시기와 순서, 단계에 따라 통합적으로 재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융복합적 지원

청년 농업인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특히 농지와 주거,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농업 인프라나, 지역 사회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의 측면, 교육적인 지원, 현장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융복합적인 차원에서 지원해갈 필요가 있다. 충남 지역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마을만들기센터나 재활센터, 평생학습, 6차 산업화 센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중간지원조직을 한 데 모으고 청년 농업인 관련 문제를 이러한 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강호 · 마상진(2011). 농업인력육성사업의 경제적 수익 효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34권 제4호, pp. 41-58
- 김기홍(2015).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 방안. 전략연구 2015-40. 충남연구원
- 김기홍(2016).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 전략연구 2016-42. 충남연구원
- 김기홍(2017).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실태 및 정책 방향. 충남리포트 Vol. 288. 충남연구원
- 김기홍(2018a).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사례. 농촌 지도와 개발, 25(3), pp. 161-173
- 김기홍(2018b). 귀농귀촌 개념과 정책 방향 재정립에 관한 연구: 충남 사례를 기반으로. 농촌 사회, 28(2), pp. 47-86
- 김정섭(2014). 귀농인의 사회 · 경제 활동과 함의. 농촌지도와 개발, 21(3), pp. 53-89.
- 김정섭 · 김종인(2017).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24(1), pp. 33-48
- 김종인 · 김정섭(2016).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정책과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23(2), pp. 115-122
- 김진호(2013). 4-H청소년 서울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청소년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0(3), pp. 729-753
- 마상진(2011). 농촌활력화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농산업교육학회, pp. 93-110.
- 마상진 · 정은미 · 김경인(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덕병 · 이민수(2015). 농촌교육농장 방문객의 선호체험과 교육적 효과 간의 정준상관관계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7(3). 한국농산업교육학회, pp. 63-81
- 박규근 · 이도진 · 이선하(2002).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농장 운영 실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4(3). 한국농산업교육학회, pp. 21-38
- 이은영(2014). 농촌활력소와 잠재농업인 육성: 학교4H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

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임형백(2008). 한국 농업인력육성의 방향 전환. 농촌사회, 제18집 1호. pp. 207-240

오해섭 · 김정주(2002).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청소년교육 및 지원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9권 제2호. pp. 185-197

전익수 · 김병률(2011). 농업인력 실태와 농업인력 정책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pp. 689-708

진종순(2010). 여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4호. pp. 87-106

최영창 · 박은식 · 고정숙 · 조영숙(2007). 청년 농업인 육성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의식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제14권 2호. pp. 351-371

황인옥 · 이소영 · 주진수 · 양주환 · 김종숙(2017).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성공 특성 및 연농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5(1). 한국지역사회학회. pp. 21-45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18). 2018년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사업: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2018).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농장(온실) 조성 및 임대 사업 지침(안).

충청남도 농업기술원(2015).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농산업 창업지원 계획(안), 예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2015). 2016년 충청남도 귀농인 육성 · 지원 계획. 예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농업정책과(2018). 충청남도 3농혁신 백서. 예산: 충청남도 도청.

충청남도 농업정책과(2018). 충청남도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 예산: 충청남도 도청.

충청남도 정책기획관(2015). 충남형 청년정책 구상. 예산: 충청남도 도청.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2018). 2018년 친환경 청년농부육성 계획. 예산: 충청남도 도청.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총조사. 대전: 통계청.

Inwood, S. M., & Sharp, J. S. (2012). Farm persistence and adaptation at the rural-urban interface: Succession and farm adjustment. *Journal of Rural Studies*, 28, 107-117.

Koutsou, S., Partalidou, M., & Ragkos, A. (2014). Young farmers' social capital in Greece: Trust levels and collective actions. *Journal of Rural Studies*, 34, 204-211.

Leonard, B., Kinsella, A., O' Donoghue, C., Farrell, M., & Mahon, M. (2017). Policy drivers of farm succession and inheritance, *Land Use Policy*, 61, 147-159.

Miles, M., & Huberman, A.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London: Sage.

Onwuegbuzie, A. J., & Weinbaum, R. K. (2016). Mapping Miles and Huberman's within-case and cross-case analysis methods onto the literature review process. *Journal of Educational Issues*, 2(1), 265-288.

Zagata, L., & Sutherland, L-A. (2015). Deconstructing the 'young farmer problem in Europe': Towards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Rural Studies*, 38, 39-51.